University of Toronto F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JUN 7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DAILY

No.1152 1983년 6월7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Tuesday, June 7, 1983

토론토발행인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고국장 : 송광호

한인문제협의회 22일로 확정

"한인직원 고용하라"

『맥』장관 통해 주정부에 건의할 듯

온타리오정부에 한인사회의 요망사항을 직접 전하기 위한 온타리오정부주최 '83한인사회문제협의회에서 한인측이 발표하는 의견의 최종적 결론은 "정부와 한인사회를 좀더 밀접히 연관시키기 위해 한인사회를 이해하고 한국어를 쓰는 직원을 문화관계등 정부부처에 많이 고용해 달라"는 것으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6일 구상회 준비위원장에 의하면 <교육및 문화관계>의견은 84년9월부터 시작되는 새고교학제에서 5개의 영어과목 필수조건을 완화하라는 것, <사회문제>는 노인등이 언어 때문에 이곳 규정을 잘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것, <사업>분야는 쎅스잡지진열및 일요영업 문제등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위원장은 이상 3개 분야에 대한 의견을 다시 종합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론짓는다면 그랜트(무상원조)를 더 달라든가, 특정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한국사회를 아는 직원의 정부고용"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온타리오주정부에게 한인사회의 요망사항등을 직접 전하기 위한 이번 협의회는 22일 하오6시 다운타운 홀리데이·인(89 Chestnut St, Toronto, 토론토시청뒤)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주정부 각료를 대표해서 로이·맥머트리 검찰총장(법무장관겸), 이번 회의 주관자인 온타리오인권옹호위원회의 인종문제담당 우발레(Dr. B. Ubale) 국장이 나오고, 한인측에서는 구위원장을 비롯, 한인사회 단체장, 또는 단체대표자들과 분야별 의견발표자들이 참석한다. 맥머트리총장은 내각의 인종문제담당 장관이기도 하다. 협의회 일자는 맥머트리총장의 일정 때문에 최근까지 확정되지 못했다.

의견발표자는 교육 및 문화관계에 유재신박사(토론토대학 동양학과), 사회문제에 김창열 한인 YMCA총무, 사업관계에 차선겸 실업인협회장이다.

이들은 각각 구위원장 및 윤주석 온타리오 한인대학생동창회장, 이상철목사및 조성준 사회사업가, 삐커협회등 경제단체등과 상의, 발표문안을 기초했다.

영어로 진행되는 10~15분씩의 발표 후 분야별 그룹토의가 영어 및 한국어로 열리며 의견을 다시 종합, 최종적 결론을 발표한다.

주최측은 저녁식사를 제공하며, 참석자의 회비는 없다.

구 준비위원장은 6일 이번 모임의 중요성을 강조, "각단체에서 4~5명, 큰 단체에서는 10여명씩 참석하여 캐나다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강력히 밝히자"고 당부했다.

구위원장은 이번기회는 주정부가 한인들의 성장을 인정, 부여해준 최초의 기회이므로 정부에게 교육·문화·사업·노년·부녀·인권등 여러분야에 걸친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한인사회의 결속된 모습이 주정부 각료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정부 주최자들은 약 2백명의 한인이 이번 회의에 오는 것으로 추산했다.

회의참석 희망자는 양식을 기입, 담당 킴·탠씨에게 보내야 한다.

주정부는 이미 중국인 및 필리핀계와의 회합을 가졌다.

정부는 3번째로 맞는 한인들에 이어 다른 소수민족들과 계속 협의를 갖는다.

한인사회문제협의회
프로그램

6월22일(수) 홀리데이·인(시청뒤)
6:00~6:30 등록
6:30~7:00 환영사와 귀빈소개
－구상회 준비위원장
－Dr. Ubale(인권옹호위 인종담당국장)
－맥머트리 검찰총장(장관)
7:00~7:30 부페식식사
7:30~8:20 의견발표(영어)
－교육·문화(유재신박사)
－사회문제(김창열 YMCA총무)
－사업(차선겸 실협회장)
8:20~9:30 그룹토의(한국어·영어)
9:30~9:50 휴식
9:50~10:30 결론(영어)

<잘라서 6월15일까지 보내십시오>
Registration Form

참가신청서
이름
주소
단체명
전화
보낼곳 : Race Relations Div. OHRC, 400 University Ave, 11th FL, Toronto, M7A 1T7
문의처 : Mr. Khim Tan (965-3423)

워크숍
참석희망 그룹토의 분야를 표시하십시오. (1)은 제1희망, (2)는 제2희망.
( )교육·문화
( )사회문제
( )사업

이민의 문화적 자아를 밝혀주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토론토 교민실태 조사 착수

한인회, 연방정부 자금지원받아

토론토한인회(회장 장순채)는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지난주부터 토론토교민실태조사에 착수했다.

6일 장순채한인회장은 "토론토 한인의 수를 3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5만이라고 하기도 한다"면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교민수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번 조사에 많은 한인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월에 연방정부에 설문및 실태파악을 위한 취지와 함께 2만2천달러의 그랜트를 신청했으나 9천2백달러밖에 나오지 않아 애초에 8명의 한인학생들을 고용하려던 계획을 3명으로 축소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장회장은 설명했다.

김중수(UT 상과3년)씨를 수퍼바이저로 정진미씨등 3명의 조사팀은 6,7,8월 3개월간 한인회와 각교회단체 주소록을 기준으로 전화 및 직접방문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인회는 이번 조사를 위해 755-1625, 755-1650, 755-2700등 3대의 전화를 증설했다.

무기명으로 작성되는 실태조사의 설문은 연령, 직업, 학력, 주택소유유무, 자녀수, 시민권유무, 선거참여도, 종교, 캐나다 생활만족도등을 묻고 한인회에의 요망사항, 회비납부유무, 속한 단체명등에 관해서도 묻게 된다.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 동거여부등을 확인, 노인수의 파악도 시도할 예정이다.

한국, 101명 선수파견

88개국참가 유니버시아드대회

(오타와) 한국은 7월1일부터 11일까지 88개국이 참가하는 에드몬톤 유니버시아드대회에 101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6일 오타와대사관 박영길공보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선수단은 선수61명(남56명 여5명), 본부임원 12명, 경기임원 15명, 국제심판 4명, 회의대표 4명, 조사연구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수61명은 육상3명, 펜싱8명, 수영2명, 다이빙2명, 사이클10명, 체조6명, 테니스6명, 농구12명, 배구12명이다.

이번대회의 취재를 위해 일간스포츠사 체육부 이기홍기자, 한국일보 사진부 정범태기자등 체육부기자 12명과 사진부기자 7명이 에드몬톤에 온다.

유니버시아드 문화행사

중앙대학생 사진부문 입상

(오타와) 에드몬톤 유니버시아드대회의 문화행사인 컬레이도스코프(Kaleidoscope : 만화경) 행사에는 한국등 95개국이 참가한다.

오타와대사관측은 6일, 한국이 참가하는 행사는 (1) 한국공예품 전시회, (2) 한국가면탈 전시회, (3) 대학생사진경연대회, (4) 대학생영화필름 페스티발 등이라고 밝혔다.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앞서 3일 실시된 대학생 사진 경연대회에서는 "This Land of Mine"(나의 조국) 부문에 중앙대학교 김용석군이 2등상, 중앙대학교 조창원군이 같은 부문에서 3등을 수상했다.

사진경연대회에는 3개 부문에 100여명이 900여점을 출품했으며 이중에는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5명이 출품한 11점이 포함되어 있다.

꽉 찬 파킹장

6월 첫주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사람들로 메트로·토론토와 교외의 명소들은 금년들어 최대로 붐비었다.

401서북쪽의 캐나다 원더랜드는 12시가 되기전에 이미 파킹장이 붐벼 주변의 길옆에도 차량들로 혼잡했으며 경찰은 딱지떼기에 바빴다. 이날 원더랜드 킹즈우드 뮤직티어터에서는 개장기념으로 가수 앤·마리가 공연했다.

중공피납기 승객중 40명은 우주과학자

(연합통신=31일) 서울소식통은 지난 5월5일 한국에 비상착륙한 피납 중공 민간항공기의 승객 96명 중에는 40명의 중공 공간기술원 소속 우주과학기술자가 끼어 있었으며, 그들은 중공의 우주선 발사계획에 관한 연구보고서 등 극비문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사실이 밝혀진 것은 3명의 일본인 승객중 마끼노·미도리(30) 여사가 긴급착륙 직후 여러명의 중공인 승객으로부터 "우리는 남한에 억류되어 있다. 구출해 달라"는 연기명 메모를 받아서 이것을 주한 일본대사관으로 가져간 것이 계기가 되었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즉시 이것을 일본외무성에 전하고, 외무성은 주일 중공대사관에 연락, 중공대사관으로부터 공식 신원확인을 얻었다고 한다.

그들 과학자중 한명은 중공항공공업학교 부원장 왕안(61)으로 우주항공기술팀의 책임자를 겸하고 있다.

중공공간기술연구원은 중공 최초의 인공위성이 발사되기 2년전인 1968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4개 분과연구소를 산하에 가지고 있어 1천560명의 과학자가 우주과학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

오늘의 예금금리(5/11부터)

기 간	한인신용조합 신용조합	오푸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7.25%		6.75%
90일	7.50%		7.00%
180일	7.75%	8.25%	7.25%
365일	8.50%	8.25%	8.0%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은하 보석
ROLEX 대리점
란콤화장품
오메가시계 35% ~ 50% OFF
교포유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가공공장 허가소지업체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해보험
497 3800 284 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536 1692
R.245 3539

현 영 일
공인회계사무소
444-9341
YOUNG I. HYUN, C.A.
Chartered Accountant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5147

감사합니다

지난 5월28일(토) 본회사 개업식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교민여러분께 감사를 올립니다.
특별히 귀한 선물과 꽃을 보내주신 단체 및 은사님들께 지면을 통하여 인사 올리며 성심성의껏 봉사하여 그뜻에 보답하겠읍니다.

김치배달을 시작합니다
6월7일(화)부터 본회사의 김치배달차량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교민여러분의 많은 주문을 기대합니다.

◎금주의 품목 및 가격
□풋배추김치(2ℓ 중간병) $6.00
□열무김치(2ℓ 중간병) $6.00
□통배추김치(4ℓ 큰병) $11.00
□무우말랭이짱아치(작은 통) $3.00
(유리병 큰것 $1.50, 중간것은 $1.00반환됩니다)
배달시간 매주 월~금 오후1시부터 밤8시까지.
주문전화 ☎833-6913(공장)
☎636-3071 ☎248-6389(밤)
김치카나다주식회사

변기용모터 고장이 원인

에어·캐나다 사고원인 중간발표

(신시내티)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에어·캐나다 DC-9기의 화재는 화장실 변기를 씻어내리는 유색세척액체를 공급하는 소형 전기모터의 고장이 원인일지도 모른다고 사고현장의 조사단이 밝혔다.

5일 사고조사단의 도날드·엔젠씨는 조종사 도날드·케메론(51)씨와 부조종사 클로드·위메(34)씨가 증언한 "화장실 세척액체공급용 모터에 연결된 3개의 회로차단기가 터져 나갔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이같이 추측한다고 말했다.

미정부 운수안전위원회 조사관인 엔젠씨는 일반적으로 차단기가 터지면 모터내의 전기연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비행기 사고조사에만 4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엔젠씨는 화장실 휴지통에 떨어진 담배불이 화재 원인이었다는 추측을 배제했다.

몬트리얼의 에어·캐나다 대변인 패트릭·데일리씨는 엔젠씨가 언급한 "화장실 변기세척용 펌프모터"가 개인회사가 제조한 것이나 사고가 있은 후에도 국가운수안전위원회로 부터 동회사 제조의 모터를 쓰지말라는 조치를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엔젠씨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사고경위는 다음과 같다.

"조종사 케메론씨가 3개의 회로차단기가 터져나가는 것을 발견, 부조종사인 위메씨를 화장실쪽으로 보냈으며 위메씨가 화장실에 갔을 때는 이미 승무원 세르지오·베네티씨가 화장실에서 난 불을 소화기로 끄고 있었고, 연기가 나고 있는 화장실의 문은 이미 뜨거워져 있었다.

이미 인디애나 공항통제탑에 무선을 보낸 조종사 케메론씨는 더 많은 회로차단기가 터져나가 방화시설이 마비되기 시작했고 이때 유색연기가 조종실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수분내 신시내티공항 관제탑의 인도로 기체가 14분간 3만3천피트를 강하, 착륙했다.

그동안 기체내의 승객들은 되도록 바닥에 엎드려 승무원들이 공급하는 젖은 물수건으로 코를 막고 호흡했다."

金聖鍾 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248>

누가 惡魔인가 ⑨

마인은 권총을 뽑아들고 소리쳤다

그는 중간 자리에 앉아있었다.

여자를 에워싸고있는 사나이들은 주위를 날카롭게 관찰하면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하나같이 살기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중의 한명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들이 가까이 왔을때 마인은 여자의 얼굴을 쭉어지게 쳐다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표정이없었다. 눈에는 초점이 없었고 넋나간듯 멍해있었다. 그녀는 한 사나이의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있었다. 안쪽의 구석진테이블이 비워지고 그들은 거기에 둘러앉았다.

그들이 한으로 들어선 순간부터 음악은 갑자기 조용해지고 있었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자 음악은 다시 귀를 찢을듯 시끄러워졌다.

수십개의 눈들이 제5의사나이를 찾아 번득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가 제5의사나이다라고 말하면서 나서는 사람이 없는 이상 그를 알아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12시 정각.

갑자기 음악이 뚝 그쳤다. 무거운 정적이 실내를 덮쳤다.

사람들은 악단이 자리 잡고 있는 정면을 바라보았다.

그 악사는 맨 왼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큰 키에 당당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트럼펫 담당이었다. 다른 악사들처럼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얼굴 모습을 알아볼 수는 없었다. 별다른 특징 같은 것도 없었다. 갑자기 정적을 깨고 혼자서 트럼펫을 불기 시작했다. 다른 악사들은 가만 있었다. 그의 솔로 연주는 아주 훌륭했다.

웜은 감고 있던 눈을 살그머니 떴다. 귀에 익은 곡「죽도록 사랑해서」가 아련히 들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참이 즐겨부르는노래였다. 그는 특히 트럼펫의 명수였다. 그는 그녀를 위해 트럼펫으로「죽도록 사랑해서」를 불러주곤했었다.

곡이 끝나자 악사는 흰이를 드러내고 소리없이 웃었다. 웜은 비로소 정신이 드는것 같았다. 그녀는 하마터면「아」하고 소리지를뻔했다.

밴드가「베사메무초」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트럼펫 악사는 무대에서 따로 떨어져 나왔다. 아마 화장실에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았다. 악사는 웜이 앉아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그쪽은 화장실로 통하는 길목이었다. 마침내 두 사람 사이가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로 좁혀졌다. 악사는 스치듯이 하고 지나갔다. 바로 그때 전기불이 나갔다. 갑작스런 암흑에 사람들은 움직임을 멈췄다. 그러나 밴드만은 노래를 계속 연주하고 있었다.

마인은 반사적으로 권총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소리쳤다.

『불을 켜.』

거기에 응답하듯 총소리가 요란스럽게 실내를 울렸다. 기다렸다는듯 여기 저기서 총소리가 났다. 밀폐된 실내에서 나는 소리였기때문에 마치 천지가 무너지는 것같이 요란스러웠다. 그와 함께 자지러질듯한 비명이 실내를 휩쓸었다. 실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의자와 탁자가 쓰러지고 먼저 빠져나가려고 서로 밀치고 잡아당기고 하는 바람에 얽히고 설켜 뒤죽 박죽이었다. 경찰은 그속에서도 질서를 잡으려고 호각을 불어대고 출입구를 봉쇄하려고 했기때문에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마인은 계속 불을 켜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다.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누가감히 불을 밝히려고 하겠는가!

특공대원들은 출입구를 봉쇄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마침내 출입문을 걸어잠근 순간 구석쪽에서 화하고 불길이 일어났다.

朴 男 그림

강도에 얻어 맞아 절명

벡커·스토어 점원

◆사망한 캐런·헌터양

(앨리스톤) 메트로·토론토 북쪽 94킬로미터 지점의 작은 마을 앨리스톤(Alliston)의 벡커·밀크스토어에서 캐쉬를 보던 22세의 미모의 여자종업원이 상점 지하실에서 심하게 얻어맞은 시체로 발견됐다.

캐런·루스·헌터양의 시체는 사고 이튿날인 4일아침 토론토·스타 배달용 트럭운전수와 조수에 의해 발견됐다.

헌터양은 3일밤 자정까지 일한뒤 4일아침 7시 다시 상점문을 열기로 되어 있었다.

스타지 트럭운전사 고든·바버씨는 지하실로 가는 층계 바로 밑에 있던 헌터양의 시체는 아랫도리가 전부 벗겨져 있었으며 주위에는 깨진 팝·바틀과 여기저기 피로 얼룩져 있었다고 말했다.

온타리오주 경찰은 상점내의 캐쉬대가 텅빈 것으로 보아 강도및 성적추행 살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지니스 소식란

나이아가라폭포옆

한국음식점 〈정원〉개업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한국식당 〈정원〉(Korean Garden)이 6일(월) 개업했다.

나이아가라·폴즈(Niagara Falls)의 스탠리·애비뉴(7197 Stanley Ave.)에 있는 식당 정원은 교민 이충균씨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한정식을 즐기십시오"란 캐치프레이즈로서 개업한 식당으로 버스터미날 남쪽에 위치해 있다.

전화번호는 1-354-3800.

교 민 동 정

◆정번헌=지난달 토론토소재 캔암부동산회사를 사직하고 세인트·캐더린으로 이주, 로열트러스트 부동산부에서 세일즈맨으로 활약중이다. 토론토한인회부회장을 지낸 정씨는, 원래 세인트·캐더린서 부친 정인진씨와 함께 살았다. 나이아가라·폴 일대의 주택및 사업용부동산을 알선중개하는 정씨는, 교민들이 나이아가라에 올때 들려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전화는 1-688-1544(사무실), 1-935-2325(집)이다.

◆이종현(한인천주교신용조합장)=이번 토론토한인천주교신용조합장에 피선, 사목위원회 총무직을 사퇴했다. 후임 총무로는 조규연씨가 내정됐다.

복권문제 심각

범죄유발가능성 짙어

온타리오주 내에서 발행해서 실시되는 각종 복권이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려 사회적인 중독증상과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클락심리연구소의 다니엘·패이티취씨가 그의 연구를 통해 밝혔다.

그는 복권이 재미의 도를 넘어 사행심을 조장, 심한 중독증세가 되어 심한 경우 렌트비를 날리고 돈을 훔쳐 굶주리는 사태까지 유발하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한 스토어의 주인은 동네에서 웰페어를 타는 노인이 매주 30달러 이상어치의 복권을 고정적으로 산다고 밝혔다.

또한 퀸스트릿의 가게주인인 앤·구멘씨는 매주 500달러어치를 고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 심리연구가는 대부분 주말이면 자신들이 당첨될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에 부풀어 흥분하다가 월요일만되면 의기소침했다가 또다시 사는 묘한 심리가 만연한다고 우려했다.

지난주간 경찰당국은 로얄·트러스트에서 183,000달러를 빼돌려 매주 5,000달러 이상의 복권구입에 탕진한 패트리시아 스미스양을 구속했다. 이 경우도 이같은 중독증상의 빙산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닥터 다니엘씨는 말했다.

그녀는 1981년이후 재미를 들여 대부형식으로 서류를 꾸며 인출, 복권사기에 미쳤다.

10대 음주과속 급증

음주연령 21세로 올리려는 움직임

십대들의 음주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급증이 두드러지고 있다.

매년 1,500명이상이 온타리오주내에서 교통사고로 숨졌으며 작년도의 경우 21세이하 운전자들이 낸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수도 10,000명이상으로 기록돼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고원인이 음주후에 생긴 것을 감안, 주정부는 현재 19세로 부터 21세로 음주가능연령을 올릴 것을 고려중이다.

주정부(교통)의 제임스·스노우 담당장관은 젊은이들은 사고를 무서워하고 있지 않으며 책임있는 운전을 상관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바른 운전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몇가지 통계자료를 밝혔다.

▲15세에서 24세에 이르는 젊은 층이 사고를 많이 냈으며,

▲동연령층의 운전자중 사고시 40%가 사망했다.

▲사망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음주에 의한 사고가 원인이 됐다.

▲온타리오주내에는 21세 이하의 운전면허소유자가 전면허자의 10%이나 전체음주사고의 25%를 점유하고 있다.

주정부는 1979년도에 음주가능연령을 19세로 올렸으나 각종 문제는 여전한 실정이다.

한편 온주의회는 6일 윌리암·데이비스수상의 제의로 설치된 특별위원회에서 음주와 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진씨의 전시작품 중의 하나

화가 김정진개인전

13일부터 10일간 콜럼버스센터

◆김정진씨

토론토의 화가 김정진씨의 개인전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901 Lawrence Ave. W. (× Dufferin), Columbus Center의 Boardroom에서 열린다. 개관시간은 평일 정오부터 하오6시, 토요일은 하오1~6시, 일요일 하오1~7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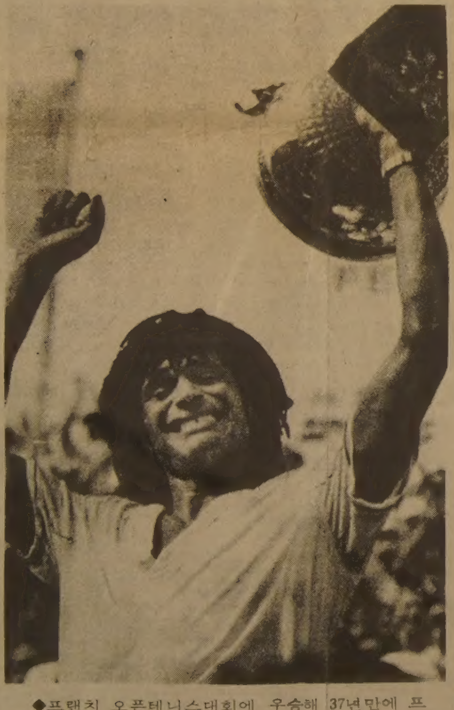
개인전 리셉션은 6월15일(수) 하오 7~10시, 전시장에서 있다.

1942년 평북 강계생으로 서울의 경복고교, 홍익대학을 거쳐 73년 캐나다 이민후 올봄에 온타리오미대(O.C.A.) 회화과를 마친 김씨는 수채화 및 유화의 구상화를 전공, 이번에 40점을 선보인다.

이민의 정치적 경제적 권익을 지켜주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프랑스의 노아선수 우승

프렌치오픈 테니스



◆프랜치 오픈테니스대회에 우승해 37년만에 프랑스에 영광을 안겨준 야니·노아선수

(파리) 5일 거행된 프랜치 오픈 테니스 경기에서 23세의 야니·노아선수가 우승을 차지, 프랑스에 영예를 돌렸다.

롤랜드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노아선수는 스웨덴의 매츠·윌랜더 선수를 2시간 24분만에 3-0으로 (6-2, 7-5, 7-6) 누르고 승리했다.

이로써 프랑스는 본국주최의 대회에서 37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프랑스는 1946년 마르셀·버나드선수가 이 대회에 승리한 이후 잠잠했다.

13년전만해도 카메룬국적의 소년이었던 노아선수는 이날의 승리로 프랑스에게 우승을 안겼으며 9만달러의 상금을 타게됐다.

스웨덴은 이날의 패배로 5년연속의 우승을 놓쳤다.

은퇴한 비용·보그선수는 프랜치 오픈의 6회우승 기록을 갖고 있다.

이날 열린 경기는 3세트에서 13번에 걸친 타이브레이크까지 가는 열전을 벌렸다.

강호 지미·코너스, 맥켄로·랜들선수는 서전에 탈락 클레이·코트의 열세임을 나타냈다.

한편 여자부 경기는 미국의 크리스·에버트선수가 유고슬라비아의 미마·자소배선수를 2-0으로 물리치고 우승, 동대회 10번째 우승의 기록을 수립했다.

이날 관중은 1만6천명이었다.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주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평균소득 연3만440달러

캐나다통계국 발표

캐나다 국민의 가정당 평균소득은 연 30,440달러, 독신자는 13,335달러였으며, 81년 현재 전체 가정의 12%인 350만명이 빈곤층에 속한다고 캐나다 통계국(Statistics Canada)이 2일 발표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민자의 가정은 캐나다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가정보다 평균소득이 높았지만, 1960년 이후 이민온 가정이 빈곤층에 속하는 율이 높다.

또한 캐나다인중에서 가장 빈곤한 사람들은 몬트리얼의 노인과부들과, 뉴브룬스익, 뉴펀들랜드주의 시골에 사는 가족들로 밝혀졌다.

빈곤층의 공통적 특징은 8학년이하의 교육정도인자, 주거지는 셋집일 경우, 실직자 혹은 직장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는 경우였다.

빈곤층의 기준은 시골에 사는 독신자의 경우 연 4,759달러이하 수입인자, 몬트리얼, 토론토등 대도시의 독신자는 연 6,549달러이하의 수입인 경우이며, 4인 가족의 경우 연소득 16,361달러 이하인 경우이다.

◆제7회 서울관 개관식 광경

METRO TORONTO
INTERNATIONAL CARAVAN

제8회 서울관

캬라반 6월 17일~ 25일까지
서울관 830 Bathurst St.

50여종의 토산품 전시판매

구입처 한인회(755-9288) 이대환(535-1251)
장순채(532-2727) 이기훈(298-3584)
변의섭(531-6183)

* 오셔서 각국 민속제전을 즐기십시오!

티켓 9일전체 $8.00 • 당일 $4.00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계 파탄으로 형사입건

LA경찰, 3만불지불못한 계주체포

(LA지사) 3만달러의 낙찰계를 들었던 계원이 지불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계주를 경찰에 고발하자 경찰이 계주를 체포, LA한인사회에서는 처음으로 미국경찰이 계문제를 형사사건화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31명으로 조직된 낙찰계를 이끌어왔던 계주 김금자여인(가명)은 계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신고로 지난 26일 하오 램파트경찰서 소속 매클라스키형사등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김여인을 고발한 계원에 따르면 지난 80년8월 김금자여인의 권유로 3만달러의 낙찰계를 들었으며 31명의 계원들중 마지막으로 돈을 타기로 약속했었다는 것.

그러나 곗돈을 받기로 한 지난 2월2일이 지나도록 돈을 못받은 이 계원은 "2만3천달러의 원금만이라도 달라"고 호소했으나 김여인은 현금이 없으니 1천달러씩 매달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제의, 1천달러짜리 수표 23장을 일단 써주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계원은 이 수표를 은행에 갖고간 첫달에 구좌가 폐쇄되어 이미 돈을 찾을 수 없게 된 사실을 알고 김여인에게 항의했으나 "법대로 해보라"는 대답을 듣고 분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계원인 신모여인은 "계주 김여인이 그동안 여러곳의 계를 맡아왔으며 한번 돈을 탄 계원이 그 다음부터 돈을 안내는 경우가 많아 애를 먹어왔다"고 전하면서 "한쪽계의 돈을 빼내어 다른쪽 급한 계의 손실을 막는등 나름대로 고생이 많았는데 결국 피해자 김모씨에게만 큰 손해가 돌아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여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여동생 이름으로 수표23장을 써주었다고 한다.

박명달씨 차남

폴·박군 끝내 절명

◆폴·박군.

아동병원에서 가료중이던 폴·박(8)군이 의식을 회복치 못한채 3일밤 끝내 절명했다. (본보 6월3일자 참조)

교민 박명달씨의 막내인 폴군은 지난 30일밤 형과 부모와 함께 차에 타고 귀가도중 하이웨이401에서 일어난 연쇄충돌사고로 차체에 눌려 여러군데 부상을 입었었다.

폴군의 장례는 6일 상오 요크·세미트리에서 거행됐다.

일본, 『침략』표현 승인

교과서 왜곡이후 첫개정·중학교과서에

(동경 AP) 일본 문부성은 2차대전 발발전과 2차대전중 아시아 각국에서의 일본의 군사행위를 기술할때 「침략」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년에 개정되는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7권중 1권을 저술한 야자와 고스께 센슈대학교수는 문부성이 자신의 저서중 5개부분에 「침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허락했다고 30일 밝혔다.

일본 문부성은 지난해 검인정 교과서를 심사하면서 동남아침략을 「진출」로 대치시키고, 한국민의 독립운동을 탄압한 사실과 남경주민 학살사건등을 삭제해 한국과 중공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세찬 비난을 받았다.

오가와 세이찌 일본문부상은 지난해 11월 일본과 아시아 각국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과서 심사규정을 새로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문부성의 한 관리는 새로운 교과서의 내용은 오는 6월말경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매3년마다 교과서를 다시 편찬하고 있다.

세계人口 45억명

〈유엔-AP〉 금년도 세계인구는 작년같은 기간에 비해 7천8백만명이 늘어난 45억8천6백만명에 달하고 있다고 최근 유엔분기별인구및 주요통계자료에서 1일 밝혀졌다.

▲스카이워커와 베이더는 마지막으로 생사의 대결을 치른다. 베이더는 과연 선으로 돌아오는가.

새 映画

어른 아이 모두가 즐겁기만한 조지·루카스의 우주동화「스타 워스」의 마지막편인 이 영화는 첫편인「스타 워스」나 둘째편인「제국의 역습」보다 더 동화가 안고 있는 모든 꿈같은 내용을 알알이 갖춘데다 특수효과와 촬영도 가장 뛰어나 너도 나도 박수가 아깝지 않다.

희망, 모험, 우정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 만화경처럼 반짝이고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루카스의「별들의 전쟁」은 선은 악을 물리친다는 오래됐으나 변치 않는 진리를 일깨워주며 모든 사람을 환상의 길로 인도한다.

제다이 돌아오다

〈Return of the Jedi〉

알알이갖춘 꿈같은 내용의「우주동화」

관객의 함성과 박수를 받으며 장내가 어두워지면 무한히 아름다운 우주가 열리며 선과 악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된다.

악의 사령관 다트·베이다에게 패배한 루크·스카이워커는 반도들을 다시 규합 은하계의 평화를 꿈꾸고 베이다와 그의 주인이자 악의 화신인「황제」는 파괴된 것보다 더 강한 파괴력을 갖춘「죽음의 별」을 만든다. 산채로 냉동돼 거대한 개구리모양을 한 피들 자바·더·허트의 실내장식품이 된 한·솔로를 구하러 스카이워커와 레아공주 그리고 추바카, C3PO및 R2D2가 자바의 소굴로 잠입한다. 솔로를 구해낸 일행은「죽음의 별」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는 에너지벽이 발산되는 별로 침입, 베이다의 일당과 일대전투를 벌이게 된다. 이들을 도와주는 이별의 새끼곰모양의「이웍」들의 활약이 폭소를 자아내며 대단한데 이 작품에서 가장 즐겁고 신나는 장면들이 숨돌릴 새 없이 연결된다.

스카이워커는 과연 베이다가 자신의 아버지인가를 확인하고 그를 선의 세계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스스로 투항하나 베이다는 선을 거부하며 스카이워커와 빛의 검을 들고 난투전을 벌이고 이때 반도들이 총집결「죽음의 별」을 공격한다. 이 영화는「스타 워스」의 마지막편으로 결정돼 스카이워커와 베이다의 관계 또 스카이워커와 레아와의 관계가 밝혀지고 모든 것이 해피엔딩. 선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정석대로 이끌어가나 제작자 루카스와 감독 리처드·마르칸드의 상상력과 솜씨 그리고 존·윌렴스의 음악이 한데 어울려 모두가 시간을 잊으며 하나가 된다. 바로 이점이 이영화의 자랑스러운 점.「스타 워스」는 아직도 6편의 얘기가 남아있으나 언제 시작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20세기사배급. 등급PG.

「알러지 교포」 격증

이민생활 3~4년후 증세나타나

〈뉴욕지사〉 이민역사가 길어지면서 미국인들간에 성행하는 알러지가 한국인간에도 급속히 늘고 있다.

전문의들에 따르면 미국에 갓 온 한국인들은 처음 3-4년간에는 알러지 체질인 사람들도 미처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3,4년이 지난뒤부터 서서히 알러지 민감체질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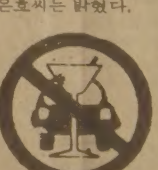
알러지 증상은 주로 나뭇가루, 풀가루, 꽃가루등의 물질이 알러지 민감체질인 사람에게 접촉되면서 일어나는 것으로 봄철이 되면서 알러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알러지과 의사 신은호씨(뉴저지주 포트리)는 요즘 하루평균 10명 정도의 알러지 환자가 찾아온다면서 가장 많은 증상이 코가 간질간질하는 재채기를 일으키는 비염 증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잦은 기침이 나는 천식의 경우 알러지에 의한 것이 많으며 한국에서 이미 천식을 앓던 사람은 미국에 온후 그 증상이 훨씬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의들은 알러지증상의 치료법은 우선 자기에게 어떤 물질이 알러지를 일으키는 가를 알아 그 물질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치료제로 항히스타민제를 쓰도록 권하기도 한다.

비염의 경우 이같은 치료요법으로 80%정도의 치료효과를 본다고 신은호씨는 밝혔다.



음주운전은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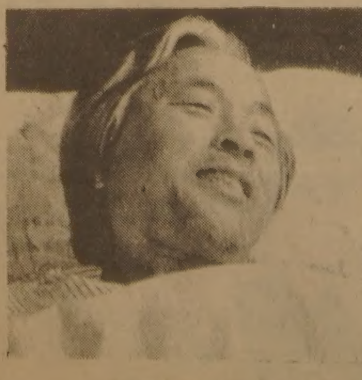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및 성화
초상화
☎:532-7909
549 BLOOR ST

광고를 원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될것입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週刊한국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김영삼선생님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토론토 교민
김원동

QUALITY CRAFT INTERIORS LIMITED
1999 LESLIE STREET, DON MILLS, ONTARIO

인사말씀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번 오랜경험과 높은 수준의 실력을 자랑하는 위의 디자인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음을 알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저의 적은 경험이 조금이나마 교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바랍니다.

□설계, 시공, 장비가설 전문
□각종 음식점및 호텔
□도넛샵, 커피샵, 쌘드위치 바—아, 햄버샵.

정기섭
445-6440

아울러 본사는 적합한 장소제공및 건축허가, 주류판매허가등을 여러분을 위해 일체 봉사해 드리고 있읍니다.

NEW WHITE
ROSE PAINTING

아파트먼트 페인트전문

1 BED ROOM $185.00
2 BED ROOM $225.00
3 BED ROOM $265.00

새봄맞이 단장을
원하십니까?
집페인트—스페샬가격
☎431-2019

인기있는 곳은 알곤퀸팍

캠핑시즌맞은 온타리오의 캠핑장안내

캠핑시즌이 돌아왔다.

온타리오 주변엔 131개의 주립공원이 산재해 있어 캠퍼들을 부르고 있다. 기초적인 몇가지 장비만 장만하면 온 가족이 캠프를 즐길수 있다.

대부분의 주립공원 캠프장은 지난주 개장, 여름동안 캠핑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온타리오 천연자연부는 금년도에 일괄적으로 주립공원 캠핑장에 대한 입장료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캠핑장 임대료(자동차 파킹포함)는 성수기와 비성수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또한 시설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다.

•전기시설이 된 캠프 사이트 : 성수기 8달러, 비성수기 5달러.

•샤워와 수세식변소 시설 포함된 곳 : 성수기 6달러75센트, 비성수기 4달러.

•간이식 변소시설만 포함된 곳 : 성수기 6달러25센트, 비성수기 4달러.

•추가되는 자동차 1대당 : 성수기 3달러, 비성수기 2달러.

•가정용 보트지참 1대당 : 4달러균일.

•예약료 : 2달러

•온타리오 거주의 시니어 시티즌 : 6월18일부터 9월6일까지의 금·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은 무료.

현재까지 온타리오 주립공원중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는 인기 캠핑장소는 파이너리(Pinery)파크, 알곤퀸(Algonquin)파크, 브론테·크릭(Bronte Creek), 케베카폭포(Kabeka Fall), 슈페리오호수(Lake Superior)등이다.

토론토등지에는 2-3시간이내에 찾을수 있는 캠프공원이 20여군데 있다.

대부분의 공원은 비치와 , 피크닉에리아, 파이어플레이스, 식수시설등이 설치되어 있다.

토론토근교의 주요캠프장은 다음과 같다.

◆발삼레이크(Balsam Lake)=148킬로 북방 하이웨이 46상의 커크필드 북동 11킬로 지점. 특히 수영하기가 좋고 카누에 일품.

◆브론테·크릭(Bronte Creek)=토론토에서 53킬로 떨어져 있으며, QEW 브론테·로드(하이웨이 25)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 수영장이 있으며, 테니스코트, 소형동물원, 자전거루트, 농장등이 일품.

◆달링턴(Darlington)=401 하이웨이 오샤와동쪽 5킬로 지점의 코트리스(Courtrice)에 위치하며, 트레일러를 위한 캠프장, 보트, 낚시, 피크닉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에밀리(Emily)=피터보로 부근의 하이웨이 7 서쪽 5킬로지점이며, 토론토에서는 141킬로. 라레이크의 수영과낚시는 일품.

◆롱·포인트(Long Point)=하이웨이 59상의 틸손버그(Tillsonburg)에 위치한 2킬로에 이르는 비취가 유명하다.

◆페트로길피스(Petroglyphs)=피터보로 북쪽 하이웨이 28과 우드뷰(Woodview)동쪽 5킬로 지점. 캐나다에서 가장 큰 선사시대의 유적지가 있으며,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유원지가 있다.

샌드뱅크(Sandbank)=토론토에서 220킬로지점으로 벨레빌(Belleville)의 40킬로 남쪽에 위치. 3킬로의 백사장이 유명하다.

◆스프링워터(Spring Water)=배리(Barrie)의 북서쪽 10킬로 하이웨이 26 끝나는 곳에 위치하며, 2,500명이상이 즐길 수 있는 각종 하이킹, 폭포, 야생동물견학시설 완비.

◆터키·포인트(Turkey Point)=심코의 남쪽 20킬로지점으로 특히 골프코스를 비롯한 야구, 농구를 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 수영장이 일품.

◆크레익 헬트(Craighleith)=토론토에서 168킬로 떨어진 하이웨이 26 끝의 콜링우드 서쪽 10킬로 지점, 유명한 블루마운틴과 부르스·트레일이 근접했으며, 각종 캠프시설 완비.

한국일보
533-2361

6개 야생공원등 개발계획

온타리오주정부 천연자원부

온타리오주정부는 금세기말까지 야생지를 개발, 천연공원을 만들어 각종교육, 낚시, 사냥, 관광을 목적으로 한 대형공원 장기개발계획을 발표했다.

2일 천연자원부 알랜·포프장관에 의해 밝혀진 이 계획은 관광업자, 카테지업자, 정부 합동으로 추진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메트로·토론토 넓이만큼 큰 6개의 야생공원과 149개소의 군소공원을 신설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계획에 수용되는 총 면적은 210만헥타르(530에이커)에 달하며, 대부분 불모지역을 개발한다.

신설될 공원에는 광산, 임산촌을 비롯한 사냥터, 대형캠프장, 유료낚시터등이 필수로 들어간다.

이 개발이 완성되면 온타리오내의 공원 총면적은 1500만 에이커에 이르게 된다.

이 계획착수에 드는 비용을 350만달러로 잡고 있으나, 17년간 개발될 이 사업에 얼마가 들지는 예측할 수 없다.

온주정부가 새로 개발할 6개 야생공원의 위치와 규모를 보면,

▲우드랜드·카리부(Woodland Caribou) : 110만 에이커, 마니토바주경 레드호수(Red Lake)지역.

▲오파스퀴아(Opasquia) : 카리부공원 규모에 조금더 북쪽지역.

▲와바키미(Wabakimi) : 38만 에이커, 니피곤(Nipigon)호수 서쪽지역.

▲레이디에블린 스무드워터(Lady Evelyn Smooth—Water) : 18만 에이커, 퀘백주경 테마가미(Temagami) 북방지역.

▲킬라니·엑스텐션(Killarney) : 34,000에이커, 죠지안 베이 팍에 연장.

▲케사가미(Kesagami)호수 : 13만에이커, 퀘백주접경 제임스 베이 부근.

현재 주정부당국은 이 개발을 위해 연방정부 국립공원위원회와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 계획이 나오자 광산업계, 산림업계, 관광업계는 찬성을 표하고 활기를 찾게 될 것이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민의 문화적 자아를 밝혀주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사진의 제목을 모집합니다. 토론토 선지는 이 사진에 대한 재미있는 설명(Captions)을 모집하고 있다. 당첨된 사람은 토론토 선 티셔츠를 받게 된다. 개의 이름은 베니(Benny)이다.

(연재소설) **혼돈** 37

글 이태준 그림 최미정

제2편 착수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던 것이 김사장의 입을 통해서 선고되었다.

나는 김사장을 만나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면서 김사장의 말을 되새겨 보았다.

"별의별 소문이 다 떠돌아다녀도 사람들이 우리집을 뒤엎고 가기 전까지는 설마 그러려니 했었다. 남이 돈을 벌고 잘되면 배가 아픈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문도 많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나의 오산이었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여우의 흉계를 모른 나의 오산이었단 말이야. 당장 꺼져! 빨리 내 앞에서 꺼져버리란 말이야, 꺼져!"

그는 눈에 불을 켜고 침을 튕기면서 나를 내쫓았다.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불안스럽고 걱정되던 순간이, 막상 당하고 보니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오기가 생겼다.

「여자가 남자의 돈을 울거내는 것은 비판과 물의의 대상이 돼도, 남자가 여자를 짓밟고 비참한 일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묵인될 일인가?」

나는 길거리를 걸어가는 남자들의 얼굴에 침을 뱉아주고 싶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는 음흉스럽고 가증스러운 행위를 서슴없이 하면서 어둠을 빠져나오면 양복을 입고 너그러운 신사인 체 걸어가는 남자들의 얼굴에 침을 뱉아주고 싶었다. 점잖을 빼고, 의젓이 걸어가는 남자를 볼 때마다 침이 고여서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침을 칵 뱉았다. 민들레가 흐드러지게 핀 길가에 침을 뱉으면서 거듭 다짐을 했다.

"나는 남성의 위에 서리라. 그들이 나를 짓밟고 애욕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짓밟고 멸시하리라."

나는 마음에 두고 있던 곳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불러 탔다.

내가 왕궁을 꿈꾸며 눈여겨 보아오고 있던 장소에 이르렀을 때는 봄의 화사한 햇살이 시들어 버리고 가물가물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에 남자들의 사진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술집의 문을 열었을 때, 여자들이 떠드는 소리와 화장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어느 자리를 원하세요? A석, B석, C석이 있읍니다."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가 뒷벽에 붙은 좌석의 약도를 가리키며 물었다.

"A석."

"기본료는 100달러이고, 술값은 따로 받습니다."

"알겠어요."

나는 기본료 100달러를 지불하고, 아가씨가 준 번호의 좌석을 찾아 걸었다.

"손님, 잠간만!"

"네?"

"잔돈은 충분하세요? 팁을 주시려면 잔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괜찮아요. 나는 큰돈으로 팁을 줄 거니까요."

그가 옷을 벗어 던질때마다

여자들은 함성을 지르며 광란하고…

자리를 찾아 앉은 나는 계속 술을 시켜 목구멍에 들이 부었다.

얼마나 마셨을까? 서서히 술이 오르고,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술을 더 마시면 취해버릴 것 같아서 술을 중단하고, 담배를 피우며 무대 쇼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술이 취한 여자들의 빨리 시작하라는 고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실내의 전등이 소등되고, 원형으로 좌석의 중앙에 자리잡은 무대에 오색의 전등이 켜지면서 말쑥하게 차려입은 곱슬머리의 미남자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왔다.

스피커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개말이 끝나고, 빠른 템포의 음악이 흘러나왔다. 곱슬머리의 미남은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가 요란하게 몸을 흔들며 춤을 추고 옷을 벗어던질 때마다 여자들은 함성을 지르며 광란했다.

여자들의 더운 숨결과 음악과 춤이 어울려 장내는 흥분으로 충만해 갔다.

춤을 추는 남자의 등에 번지르르 땀이 배이기 시작했다.

"옷을 벗어라! 마지막 남은 너의 팬티를 벗어던지고, 몸을 더욱 요란하게 흔들어라!"

나는 야릇한 쾌감을 느끼며 소리를 질러댔다.

땀이 번지르르 흐르는 그의 등위에 채찍을 휘두르고 싶은 충동이 일기도 했다.

나는 나를 농락한 남성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차례대로 하나씩 무대 위에 세웠다. 나의 의붓아버지, 수염이 텁수룩한 그가 덜덜 떨며 무대의 중앙에 섰다. 그의 옷을 갈갈히 찢어 버리고 춤을 추게 했다. 공포와 수치로 어쩔 줄을 모르며 춤을 추는 그의 알몸에 채찍을 갈겼다. 채찍이 그의 맨살에 감길때마다 피부가 터지고 피가 흘러내렸다. 그가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할수록 나는 잔인한 쾌감을 즐겼다.

여관주인, 지배인,…김사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채찍을 그들의 맨몸에 가하고, 가혹한 행위를 끝냈을 때 누적되었던 내 원한은 풀어지고, 속이 후련해졌다.

무대에서 춤을 추는 곱슬머리의 남자가 마지막 남은 팬티를 벗어 던졌다. 전라가 되리라고 예상했는 데 그는 팬티속에 또 하나의 가느다란 삼각팬티를 입고 있었다.

아슬아슬한 삼각팬티만 걸쳐 입은 그는 춤을 추면서 객석을 돌기 시작했다. 그가 하나하나의 객석 앞을 지날 때마다 여자들은 환성을 지르며 그의 팬티 속에 팁을 찔러주고 비비고 주물럭거리다 아쉬운 듯이 그를 놓아주었다.

내가 수많은 남자들의 농락감이 되었던 것같이 곱슬머리의 미남청년은 수많은 여성들의 농락물을 당하고 있었다.

통쾌한 기분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던 나는 그가 내 자리 앞에 이르렀을 때 한주먹의 돈을 찔러 넣어주고

"잘한다, 잘한다"

격려를 해주며 궁둥이를 두들겨 주었다.

〈계속〉

가장 많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생활영어

민병철 담당
(시카고 한인 영어연구원장)

I'M NOT MYSELF TODAY.

오늘 따라 typist(타자수)인 Betty의 행동이 이상하다. 평상시 같으면 금방 되는 typing도 30분 이상이나 걸리고, 그것도 오자 투성이다 coffee를 엎지르고 곁에서 누가 무슨 말을 걸어도 엉뚱한 대답을 한다.

What's the matter with you?(무슨 일인가?)라고 물어 보았더니 My father had a heart attack last night and he is in the hospital. I'm not myself today.(저의 아버님이 간밤에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병원에 계십니다. 오늘은 제 정신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I'm not myself.란 이같이 「내 정신이 아니다」라고 할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I'm under the weather. 란 말도 있다. 이 말은 날씨 밑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not feeling well physicall(몸이 좋지않은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몸이 좋지않다」라는 말이다. under the weather를 넣어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본다면 I'm feeling a little under the weather today, so I'd like to go home early.(오늘은 몸이 좀 좋지않아서 일찍 집에 가 봐야겠읍니다)이같이 할수있다.

I'm under the weather. 와 같은 말로는 I don't feel well. 이 있다.

A: We had a meeting at 10 o'clock. Where were you?

B: I'm sorry. I guess I forgot.

A: Forgot? How could you forget?

B: I don't know. I'm not myself today.

A: What's wrong?

B: Maybe I'm just tired. I haven't been getting much sleep.

A:10시에 모임이 있었는데 어디 있었니?

B:미안해. 잊었던 모양이야.

A:잊었어? 어떻게 잊을 수가 있지?

B:모르겠다. 오늘은 내 정신이 아니야.

A:뭐가 잘못 됐니?

B:아마 피곤한 모양이야. 요즈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

*heart attack:심장마비.(=heart failure). heartache 마음의 상처.

*physically:육체적으로.

*have a meeting:모임을 갖다. 회합을 갖다.

이연재물의 필자가쓴 「생활영어」 1, 2, 3, 4권을 구입하려면 B.C.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111 60053 U.S.A.로 수표나 모니오더를 보내면됩니다. 가격은 권당 12달러(판매세및 우송료포함) 전화:(312)966—4050

온타리오정부주최 한인사회 문제협의회

초청

온타리오정부는 이 지역에 사는 한국인의 캐나다사회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협의회를 개최하오니 단체대표, 또는 개인자격으로 많은 분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모임에는 Attorney General Roy McMurtry장관을 비롯하여 주정부 각부처 대표와 캐나다 언론인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발전해가는 한인사회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이번 모임을 개최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 기회에 교육, 문화, 사업, 노년, 부녀, 인권문제등에 관한 한인의 의견을 정부에 알림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 하는 동시에 캐나다 한인사회도 정부와 사회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소수민족 그룹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 : 83년 6월 22일(수) 하오 6시
부페· 스타일 저녁식사 제공
곳 : Downtown Holiday Inn
(토론토시청 뒤)

◆회의준비상 참석인원 파악이 필요하오니 참석하실 분은 아래장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선 533~8344 김창열 536~1166
구상회 598~5991 Khim Tan 965~3423

온타리오정부주최 한인사회 문제협의회
준비위원장 구상회

교육관 준공예배

신앙교육의 전당인 교육관을 신축 준공하고 축하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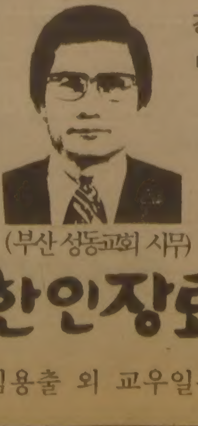
때 : 1983. 6. 12. (주일)
오후 7시 30분

곳 : 토론토제일한인장로교회
68 Collinson Blvd,
Downsview
(베더스트에서 한불럭 북쪽)
윌슨에서 4불럭 북쪽)

부흥성회

주제 : 「믿음은 들음에서」
교육관 준공과 함께 가지는 부흥성회에 함께 참예하여 은혜 나누시기를 부탁 합니다.

강사 : 옥치상 목사



(부산 성동교회 시무)

때 6. 16(목)~19(주일)
매일 오후 7시 30분
토요 새벽기도 6시
전화 636~1724
755~1528

토론토 제일한인장로교회

당회장 목사 김용출 외 교우일동

한국일보

短期外債도입 억제

韓銀、꼭 필요하면 長期차관으로 誘導

내일부터 國際收支 방어위해

한국은행은 국제수지방어를위해 단기외채의 도입을 억제키로하고 꼭필요한 외자는 장기차관으로 조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이 단기외채도입을 억제키로한것은 우리나라의 대외채무(外債)중에서 단기채무가 차지하는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국제수지관리가 불안해질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위한것이다. 韓銀은 이를위해 3년이하의 단기차관의 도입을 4일부터 강력히 억제하고 원자재수입자금의 융자기간을 단축、연불수입을 억제키로했다.

韓銀은 2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고 외화대출규정중 일부를개정、3년미만의 단기차관을 갚기위한 국내금융기관의 외화대출을 금지키로 했다.

이는 단기차관도입을 억제하고 이와 아울러 차관이자를 갚기위한 외화대출은 장단기를막론하고 전면 금지시켰다.

국내금융기관이 차관원금상환용이나 이자상환용 대출을해주지않으면단기차관도입은그만큼억제된다.

금통위는 또 금융기관이 융자기간3년이 넘는 외화대출을 할때는 융자재원의 70%이상을 상환기간 3년이상자금으로 충당토록하고 이는 오는 11월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3년이상 대출을할때 융자재원의 50%이상을 상환기간 3년이상 자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있었다.

오는 11월30일부터 3년이상대출의 자금조달이 70%에 미달하는 은행도 신규로 외화대출을 할수없도록 했다.

輸入 자유화 규정 완화

화장품 34종 내년부터

原料의약품등 모두390品目으로

정부는 수입기별 공고에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고시되어있는데도 약사법등 특별법에묶여 이제까지 수입이 금지되어온 각종 원료의약품 난방용열기 산소 중수등 2백82개품목을 완전히 수입자유화시키고 수출입기별공고와 해당 특별법에 다함께묶여 수입이제한돼온 약용 주스류·크림 및 밀크·마른고추·후추등 1백8개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법에의한 수입제한 규정만을 삭제하는등 모두 3백90개품목에 대한 수입제한규정을 조정、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또한▲샴푸·린스·어린이용화장품등 34개 화장품과▲구충제 항결핵제 혈액검사시약 방사성의약품 국소마취제를 포함한 41개의 약품(완제품)등 모두 75개품목에 대해서는 내년1월1일부터 수입을 개방하기로했다.

정부는 화장품의경우 오는 85년까지▲목욕용제품▲메이컵용품중일부▲면도용품중 일부▲기초화장품중일부를 각각 수입개방하고 86년에는 日焼및 日焼방지용품까지 포함、모든 화장품을 완전히 수입개방하기로했다.

2일 상공부가 발표한 「특별법에 의한 수입제한 내용의 통합고시」에 따르면 수출입 기별공고에 수입자유화 되어있거나 제한되어있는 품목들로서 특별법에묶여、수입금지 또는 제한을 받아온 1천9백73개품목중 3백90개품목에 대해 제한규정을풀고 17개 품목을 다시 수입제한 시켰다.

이에따라▲약사법에의한 황산칼슘등 3백42개 원료의약품을 비롯▲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의한 아크릴섬유제품등 32개품목▲원자력법에의한 중수소등 9개 품목▲사료관리법에의한 전분박등 6개품목▲에너지이용관리법에의한 방열기등 도합3백90개품목이 수입자유화됐거나 수입제한규정이 풀리게됐다.

수입기별공고에 자유화되어있으면서도 특별법에의한 수입금지조치가 풀린 2백82개품목은 오는7월1일부터 아무런제한을 받지않고 수입된다.

그러나 수출입 기별공고에는 물론 해당특별법에도 수입제한을 받아온 약용、주스류、크림、밀크등 1백8개품목은 이번에 특별법에의한 수입제한이 풀렸을뿐이어서 수출입 기별공고에의한 수입제한절차만 밟게되면 수입이 허용된다.

全대통령、申告받아 中將진급한 3명에

全斗煥대통령은 2일상오 청와대에서 육군소장에서 중장으로 승진한 金容振 崔世昌 崔文奎장군으로부터 진급신고를 받고 계급장을 달아주었다.〈사진〉

全대통령은 또 이날자로 補職이 바뀐 金烘漢육군종장과 朴熙道신임 육군참모차장으로부터 보직변경 신고를 받았다.

이자리에는 尹誠敏국방장관과 黃永時육군 참모총장이 배석했다.

국민、國會소집촉구 總裁·총무단會議서

국민당은 2일상오 총재단및 총무단연석회의를 열고 제1백17회 임시국회의 早期소집을 촉구하기로 했다.

金商工 6일 유고 訪問길

운크타드參席、閣僚론 4번째 共産圈에

정부는 오는6일부터 30일까지 유고슬라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열리는 유엔통상개발회의(UNCTAD)제6차총회에 金東輝상공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16명의 대표단을 파견한다.

金장관의 이번 유고방문은▲78년9월 소련의 알마타市에서 열린 국제보건기구(WHO)회의에 참석한 申鉉碻전보사장관 ▲79년8월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77그룹각료회의에 참석한 崔鍾完전과기처장관 ▲79년10월 유고의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총회에 참석한 金元基전재무장관에 이어 공산권에 入國하는 정부각료로서는 4번째이다.

金장관은 이번 회의기간중 13일 기조연설을 통해 점증일로에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위협성을 경고하고 세계 경제활성화 및 개발도상국의 外債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 공업국의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開途國상호간의 南南협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표명할 예정이다.

카터、朝野반발 撤軍번복

밴스回顧錄 朴大統領과 회담후 延期결심

【워싱턴=李文熙특파원】카터前 美대통령은 재임당시 駐韓美전투병력 철수계획을 강행하려했으나 한국과일본 그리고 美행정부및 의회지도자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결국 철군연기로 자기입장을 후퇴했다고 사이러스·밴스前국무장관이 그의 회고록에서 밝혔다.

밴스는 곧 출간될「어려운 선택들」제하의 이회고록에서 카터대통령은 지난 79년6월 서울에서 당시 朴正熙대통령과 만나고 귀국한지 3주일만에 그동안 자기가 선거공약으로 고집한 撤軍강행방침에서 극적으로 후퇴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싸고 감돌던위기를 넘길수있었다고술회했다.

그는 카터의 철군결정에 맨먼저 반응을보인 아시아지도자는 당시 일본수상후꾸다·다께오(福田赳夫)씨였다고 밝혔다.

후꾸다수상은 77년2월 東京에 온 먼데일부통령에게 駐韓美전투병력철수가 강행될 경우 이는 미국의중대한 실수가 될것이라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그는 찰스·퍼시의원등의회지도자들과 국무·국방성에서 한결같이 이계획에반대했으며 선거공약준수를 장담한 대통령의입장을 지지한 고위층은 백악관안보담당보좌관 즈비그뉴·브레진스키뿐이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카터대통령이 東京으로 떠나기직전에나온 중앙정보국의 북한군사력에 관한보고는 철군계획수정에 중요한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陸軍참모차장에 朴熙道中將임명

정부는 육군참모차장에朴熙道중장(49·사진)을 1일자로 임명、발령했다.

◇약력▲陸士12기 임관▲駐越맹호사단 대대장▲8軍 연락장교단장▲연대장▲空輸여단장▲사단장▲特戰사령관▲군단장

世宗路 정부종합청사에 새로 마련된 국무회의실에서 처음 열린 2일 상오의 국무회의。국무회의실이 중앙청에서 우리손으로 지은 종합청사로 移轉된것을 계기로 국민들은 진정한 爲民行政시대가 열릴것을 기대하고 있다. 金相浹국무총리주재로 열린 이날 첫 국무회의는 6건의 법안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崔東完기자찍음】

종합廳舍 첫 閣議

國會13일께 열릴듯

7일 3黨總務만나 절충

與野가 제1백17회 임시국회를 오는중순께 열기로 원칙적인 합의에 이름에따라 6월 임시국회는 오는 13~14일께 열릴전망이다.

이에따라 民正、民韓、국민등 3黨 총무들은 오는7일 열리는 총무회담에서 會期문제와 對정부질문기간、議題등에 관해 마지막 절충을 벌일것으로 보인다.

李東鎭 국민당총무는 2일『7일의 총무 회담에서 소집일자에 합의하고 8일께 소집을 공고하게되면 13일에 제1백17회 임시국회가 열릴수 있을것으로본다』고 말했다.

그런데 民正黨은 이번국회의 會期를 10일이내로、對정부 질문도 2~3일정도로 잡고있는데 반해 民韓黨은 20일、국민당은 15일정도로 잡고있으며 對정부질문도 6일간으로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그러나 3黨총무들은그동안 개별접촉을통해會期와질문기간등에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본것으로 알려지고있어 7일의 총무회담에서는 타결될것으로 보인다.

社會漫評

이름도없는 더위속에 그야말로 시원하구나…

閣議、施行令고쳐

石油備蓄기금 징수

배럴當 1·4弗로

국무회의는 2일 石油사업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석유備蓄기금의 징수한도를 수입석유배럴당 1·5달러에서 1·4달러(수입프로판·부탄은 ㎏당 20센트)로 낮추는대신 10센트는 석유개발사업의 기금으로 징수하게 했다.

改正令은 에너지 자원개발사업의 추진을위해 석유需給안정기금의 용도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과 석탄산업의 육성및 電源개발사업에대한 융자를 추가하도록했다.

또 석유輸出入業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사업을개시하지않은경우 課懲金을 5백만원으로 정하고 석유의 배급조치에 위반한때에는 8백만원~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수있게 했다.

국무회의는 또산업설비 수출촉진법개정안을 의결、플랜트수출지원기금을 설치할수있게 하는한편이 기금은 정부와 플랜트수출업자의출연금、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收益金등으로 조성키로했다.

農産物검사 대상서 林產통조림은 제외

국무회의는 2일 농산물檢査法개정안을 의결、검사를받아야 하는 농산물범위에서 林産 통조림을제외하도록했다.

이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수입후 加工한 농산물은 모두 검사를 받아오던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엔 검사를 받지않도록하고 검사표시가 있는 포장물이나 容器를 다시 검사용으로 사용하는경우 처벌토록돼있는 규정을 삭제키로했다.

楊州서 1백여직원 총무처 모내기지원

총무처 직원 1백여명은 2일 京畿楊州郡 南面 慶申里 3천평의 논에 모내기 작업을 도왔다.

地平線

시골엔 찔레꽃이 만발했다. 이맘때를 잡고 모내기를하면 풍년이 든다고한다. 또 모내기는 밤꽃·치자 꽃향기가 물씬할 때를 놓치면 큰일난다고도 했다. 옛날농사속담은 농사지을때 開花期를 표준삼았던것이다.▼그런데 지금의 모내기 풍경은 많이 달라졌다. 모내기 기계가 등장했고、농악대신 카세트에서 새마을노래나 흘러간노래가 흘러나온다. 농촌 일손돕기를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때문에 농민들도 그리큰 걱정은 안한다. 옛날의 꽁보리밥은 보기 어렵고 흰밥에 통조림·콜라병까지보인다. 농촌의 「잘살아보세」를 직접느낄수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남의 손을빌어야 할지、걱정은없어지지 않는다.▼옛날에도 모를 심거나 김을 매는등 한사람 힘으로 하기 어려운때 마을전체가 힘을합하는 미풍양속이 있었다.이른바 두레로 김쌈·품앗이、農契·農社라고도불렀다.이 두레로 모내기를 할때면 農旗가 나부끼고、흥취를 돋우느라 농악대가 따랐다. 고장에따라 풍습이 약간 다르기는 했지만 이두레엔 아무나 참가하지는 못했다. 큰 들통을 번쩍들어 힘을 보여야했고、햇실이착한 젊은이라야 한몫낄수가 있었다.▼이 시련에 합격해야 그동네에서 성인으로 인정을 받고、장가도 갈수있고、논밭도 소유할수 있었기때문에、요즘의 잔치위주의 成人행사와는 조금 다르다. 다만 시대의 흐름에따라 농지소유의 균형이 깨지면서 대농은머슴을 두게된다. 또 벼농사와는달리 밭농사를 짓기위해 이웃끼리 몇사람씩 돌려가며 일손을도운것이 품앗이로 발전했다.▼모는 깊은데서부터 심고 처음심는자리는 그날의 바람방향을보아 바람을등지고 심었다. 열흘쯤 지나면 손으로 풀을뽑고 벼포기를 만져주는「다듬이」와散種을했다。애벌·두벌·삼동、초벌·중벌·만물·객논이라고도 했다. 모내기를 한번이라도 해본사람이면 허리를꾸부리고 따가운 햇볕에서 농부들이 쌀한톨을위해 얼마나 고생하는가를 저절로 알게된다. 都市人들의 모내기 돕기는 농촌일손돕다는것 이상의 뜻이 있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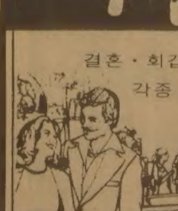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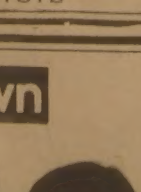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영 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김정진 개인전
·6월13일~24일·
Reception
6월15일(수) 7~10PM
Gallery Hours
월~금: 12~6 P.M
토: 1~6P.M 일: 1~7P.M
Columbus Centre
901 Lawrence Ave., West(at Dufferin)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배성.
권순근과 ADD-K 악단
월~목: 오전 11시~새벽 1시
금~토: 오전 11시~새벽 2시
일 : 오후 1시~새벽 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Grant Brown
GM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247-7161

씨올한국인학교
The See-All Korean School
중학교 프로그램
▲연령 Gr. 7~Gr. 10
▲기간 7월4일~8월12일(6주간)
▲시간 오전9시30분~오후3시30분
▲한국어와 Band : 무료. 오후1시-3시30분, 자녀들이 흥미있게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밴드부를 신설하였음. 악기 렌트비 $20
▲특수프로그램 : 과목당 전문가로부터 지도받음. 한교실에 4-10명 제한.
▲컴퓨터 (Commodor64 디스크, 프린터 모두 준비되어 있음) 지도교사 박홍길 $140
▲불어회화 : Mr. Desjardins $140
▲영어엣세이와 Public Speech : Dr. Rinaldi $140
▲수학 : Mr. Burwell $140
▲음악이론 : Mr. Kerwin,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Preliminary 또는 Gr. I $140
▲학생이 4명 이하일땐 과목취소
▲두과목을 택할땐 $250
▲신청 전화로 선택과목을 6월20일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전화 : 441-2986)
●신청처 : 150 Madison Ave. Tor. M5R 2S5
●학교장소 : 250 Brookdale Ave. John Wanless 학교

KANATA
Kanata Institute
of Computer Science Inc
10 St. Mary Street, at Yonge, Fifth Fl
Toronto, Ontario. M4Y 1P9
컴퓨터·싸이언스코스
학생모집
저희 Kanata 학교는 Minis, Micros and Main Frame 컴퓨터 시스템을 갖춘 컴퓨터사이언스 코스를 가르칩니다.
6개월 코스를 합격하면 Diploma in Business Computer Programing & Systems Analysis 을 받을수 있음.
우리들의 집중적인 6개월 프로그램은 COBOL, RPGII, BASIC, DATA BASE AND SYSTEMS DESIGN을 훈련함을 특징으로 삼습니다.
매 새학급은 5주마다 편성되어 시작합니다. 직장도 알선합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직장 알선율을 알아보십시요.
1983년 수업시작일은 6월27일, 8월22일, 9월19일, 10월17일.
자세한 사항을 알기를 원하시면 MR. WAN 960-8708 또는 장거리 무료전화 1-800-387-1235로 전화하면 됩니다.
※외국학생, 국내학생 환영

내고향메뉴

우동	$2.95	오멩백반	$3.50
짜장면	2.95	칼국수	3.25
냉면	2.95	생선초밥	3.95
통만두	2.95	불고기백반	4.95
곰탕	2.95	갈비백반	4.95
김초밥	2.95	떡만두국	3.25
비빔밥	2.95	생선찌게백반	3.95
빈대떡	2.50	두부찌게백반	3.50
		순두부찌게백반	3.50
		된장찌게백반	3.50
		곱창전골 2인분	9.00

CHARGEX VISA
▫거리에 따라 주문배달합니다.
▫VISA 카드로도 지불됩니다.
내고향통닭집
658 1/2 BLOOR ST. W.
537-0432

社說

30萬 스승에게 큰 賞을

본사의 제2회 한국교육자大賞 및 스승의 賞은, 전국에서 추천된 1백15명의 후보자들에 대하여, 심사위원회가 교육자大賞수상자 2명과 스승의 賞수상자 23명을 선정하여 2일 발표하였다.

「힘들고 벅찬 교육여건속에서 교단을 천직으로 지키면서 自矜과 긍지의 교육자像을 참조한 고마우신 우리선생님」을 찾아내어 진정한 師道의 등불을 밝히고자 하는것이 이 賞제정의 목적이다.

먼저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스물다섯분에게 그간의 공을 치하하면서 오늘의 영광을 축하한다.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文物이 새로와지는 속도가 빨라지고있는 이즈음이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것이 불가피하게 共存하게되고, 그런 가운데서 흐르리는 가치체계는 특히 나어린 子女들을 혼도하는 初中高校의 선생님들이 오늘날 부닥치는 하나의 벅찬 교육환경이다.

이렇듯 격동하는 시기에 교단을 지키면서 자라나는 새世代를 올바르게 이끄는 일은 성스러운 사명이면서 또 외로운 싸움이기도 한것이다.

그뜻을 생각하며, 우리는 30만 교직자모두에게 감사하는 우리의 진심을 전하고자한다. 여러분의 노고가 맺는열매는 나라와겨레의 발전속에 뚜렷하게 빛나고있다. 30만에 이르는 교사분들이 있기에 그속에서 1백15명의 후보가 추천되었고, 스물다섯명의 수상자가 뽑힌것이다. 그러므로 수상자들은 바로 30만교사들의 상징이라고 이해한다.

師道와 敎權에 관하여 여러말들이 많은 오늘의 세태다. 「심사기간동안 눈물을 수없이 흘렸다」는 심사위원들의 감동은 이땅에 스승들이 건재함을 웅변한다. 우리는 그 감동을 국민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다.

대부분의 10대들이 존경의 대상으로 삶은 존재가 母校의 선생님이라는 통계조사가 있었다. 스승을 높일줄 모른다는 세태를 걱정하던참에, 흐뭇한 소식이다. 이렬듯 갈등을 자아내는 교사, 제2세들의 존경대상인 선생님들이기에, 이번에 발표된 스물다섯분에 대한 시상은 곧바로 30만 교사여러분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표시인 것이다.

이 기회에 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겨본다. 천연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우리의 처지에서 기댈것은 오로지 人的자원밖에 없다함은널리 알려진상식이다. 교육자는 바로 그 人的자원을 갈고 닦아서 슬기롭게 훌륭하게 키우는 중요한 사명을 지녔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사명을다하는 교사들이 있어서 이나라 이겨레의 앞날에 큰 희망을 가질수있는 것이다.

거듭 수상자들을 축하하며 이들로 대표되는 30만교육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더한층의 분발을 성원한다.

오로지 法대로

中共機납치범 6명이 기소됐다. 독립된 法治국가로서 의연한 主權 행사요, 당연한 처리이다. 이로써 미묘한 國際政治的 함축을 지녔던 사건은 일단 순전한 法節次의 문제로 환원이 됐다. 모든 판단은 법원에 맡겨지고, 그밖의 아무도 용훼하지 못한다. 더구나 다른 나라가 왈가왈부하거나, 공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따위는 용납되지않는다.

당연히 공판은 우리 法節次에 따라 진행된다. 공판의 실질은 물론 그 형식과 절차에 있어서도 한치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司法의 독립과 법의 권위를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납치범들에대한 法節次는 엄정할뿐아니라 공정했다. 법에따라 피고인들은 변호인2명을 선임했다. 이들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는 자기방어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들이 자기방어를 위해 제기할 법률문제는 여러가지 있을수가 있다. 그들의 범법행위중 일부는 우리나라 영토밖, 外國籍 항공기안에서 일어났다. 피해자이자 증인인 항공기 승무원과 승객들은 현재 국내에 있지않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른다. 이런문제들은 前例가 없는만큼, 그에대한 판단은 하나의 先例가된다. 공판에 대한 관심은 이런데도 있다.

우리 憲法은 司法의 독립을 明示하고 있다. 『법관은 이 憲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109조)라고도 했다. 법원에 바라기는, 이 憲法정신의 견지다. 지금까지에 무엇에 미흡함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안팎으로 관심을 끈 이번사건이, 司法독립의 면모를 국내외에 과시할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스神話에 보인 正義의 女神은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었다. 엄정한 法節次는 사적에 얽히지 않는 정치·외교·이데올로기를 보지않는다. 오로지 법에의한심판이, 국제협약과 法治에 충실한 主權국가의 존엄을 드러낸다.

부끄러운 猝富바람

로마제국이 남긴 벽돌과 돌의 거대한 구조물속에서도 「목욕탕」은 유난히 사람의 눈길을 끄는 당대의 증인이다.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바닥을 장식한 우람한 목욕탕은 로마제국 말년에 벌거벗은 남녀들이 「천하태평」을 노래하던 현장이다.

걸핏하면 세계제1을 자랑하는 우리네도 그옛날로마사람들처럼 지금 세계제1의 목욕탕을 자랑하고 있다한다.

우리가 자랑하는 목욕탕은 연건평2천5백평의11층빌딩이다. 갖가지 사우나에다 헬드클럽까지 함쳐서 자그마치 43억원의 시설투자를 했다한다.

이 거대한 목욕탕 빌딩은 70년대후반 졸부들의 소비바람이 휘몰아 쳤을 때엔 볼수 없었던 새로운 풍물이다. 그러나 요즈음 대도시에서 흥청대는 소비산업바람은 투기와 인플레가 휩쓸었던 수년전을 되살아나게 한듯한 인상을 주고있다.

경제기획원 통계에따르면 작년 말현재 서울의 술집은 3년동안에 50%나 붙어났다. 신흥유흥가라는 강남지역의 호화판 술집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호화판 갈비집에서 중국음식점에 이르기까지 「먹는장사」도 목욕탕빌딩만큼 충격적인 새풍물이다. 플라스코 천정화를 그리고, 3천만원짜리 샹들리에와 3층높이의 분수대등 모두10억원이 넘는돈을 실내장식에 쏟은 중국음식점이 있다고 한다. 3억원짜리 높이8m의 인공폭포와 물레방아 등 5억원을 쓴 갈비집도 있다.

불경기가 사람의허리띠를 졸라매고있는 동안, 서울이나 부산같은 대도시에서는 그옛날 秦始皇의 아방궁 부럽지않은 「먹자판」이 흥청대고있다는 비판을 받기십상이다. 경제기획원이 술집이나 고급음식점에 세금을 무겁게 매기고, 은행 돈을 꾸어주지않기로 할만큼 사태는 심상치않은 선까지 와있다.

대기업들이 도심재개발사업의 이름을 빌어 대규모의 호화판 임대빌딩을 짓는것도 비정상적인소비바람의 확대판이라고할수있다.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고있다고는 하지만, 수출은 아직도 주춤한 상태인채 국내의 소비바람만 웅성대고있는 꼴이다. 덩달아 수입은 늘어나고 있다.

투기바람을 타고 졸부를 대량생산해냈던 70년대 후반의 부끄러운 기억을 또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소비에도 윤리가 있고,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회모두가 가르쳐야 된다. 「부동산」과 꼴사나운 「먹자판」으로 특징지워졌던 70년대 졸부바람이 다시 일지않도록 당국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 뒷북아닌 대책을 바란다.

이軍, 부분撤收 개시

東部레바논 3개旅團 대상될듯

【예루살렘AP UPI=聯】이스라엘은 1일 베긴수상이 시리아에 대한 공격의사가없음을 밝힌것과 때를 같이하여 레바논에 파견된 일부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기 시작했다.

AP통신의 남부 레바논 주재기자 래리·터순은 이날 시리아와의 전쟁위기에 대처하기위해 지난주말 대규모병력증강조처를 취했던 이스라엘軍이 이날 부분철군을 개시, 남부레바논의 좁은 도로들을 꽉 메운 장갑차와 155㎜ 自走砲를 실은 트레일러 트럭의 행렬이 이스라엘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루트의 외교소식통들은 시리아의 군사력증강조치에 대처하기위해동부레바논에 增派됐던 3개여단(1만명) 병력이 이동대상이 될것으로 추측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군사소식통들은 이스라엘軍이 사태가 발전하는데따라 응분의 대처를 하고있다면서 긴장이 조성되고있는가의 여부에따라 변하는 戰場의 현실성을군사활동의 지침으로 삼고있다고 말했다.

蘇, 초대형潛艦 개발

【브뤼셀UPI=聯】소련은적어도 20개의 전략핵미사일을 적재할수있는 정규항공모함크기의 거대한 최신형잠수함을 개발했다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위원회의장인 로버트·폴즈해군제독이 1일 말했다.

캐나다해군의 폴즈제독은 『소련은 우리들을 압도하는것을 종종 들고나오곤한다』고 말하고 항공모함에 승선해본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볼때 소련의 최신형잠수함의 諸元은 보통크기의 항공모함보다 더큰것으로 믿어진다고밝혔다.

우간다首都 북부서 2주간 5백명학살

【캄팔라(우간다)AP=聯】지난 2주간 우간다首都 캄팔라북부의 루웨로지역에서 수차례의 학살사건이 발생, 5백명이상의 우간다人이 목숨을 잃었다고 문난시紙가 1일 보도했다.

문난시紙는 이들중 일부는 우간다정부군에 의해, 또다른 일부는 밀턴·오보테대통령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반군에 의해 살해됐음을 시사했다.

이 보도는 캄팔라북부48㎞지점의 키큐사지역에서 지난 5월26일과 28일두차례에걸쳐 반군이 한난민촌을 공격, 2백명의 민간인을 살해하고 1백60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拉北 제헌의원 權泰羲씨 死亡

【서울=聯】制憲議員으로 6·25때 拉北, 그동안 北傀의 위장평화선전단체인 「在北평화통일 촉진 협의회」 회원으로 이용당하던 權泰羲씨(慶北출신·牧師)가 지난29일 77세로 사망했다고 平壤방송이 31일 보도했다.

“蘇권력구조 改編” 계기로

외교소식통 政治局員 펠세死亡

【모스크바路透=聯】소련의 黨원로정치국원 아르비드·펠세의 죽음으로 이달중순께 열릴 中央委전체회의에서 소련권력구조가 개편될 것같다고 모스크바주재외교관들이 1일 말했다.

레닌의 동지로서 평생을 볼셰비키혁명노선으로 일관해온 펠세는 지난29일 84세를일기로 사망했으며 1일에는 당서기장 유리·안드로포프등 소련최고위지도자들이 참석한 장례식이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거행됐다.

펠세는 1966년 정치국원이 됐으나 지금까지 눈에띌만한 권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해보지 못했으나 黨최고원로로서 사무적성격을띈 黨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해왔다.

그러나 西方 외교관들은 그의 죽음으로 안드로포프는 최소한 1명의 측근인사를 사실상 소련의 최고권력기구인 정치국에 가세시켜 그의지지기반을 굳힐수있는 기회를 맞았다고말했다.

얼굴

朴熙道 陸參次長

特殊戰通의 「조용한 將軍」

朴熙道중장은 평소 말수가 적어「조용한將軍」으로 정평이 나있다. 56년 임관한 陸士12期 가운데 맨먼저 中將에 진급했었다. 맹호사단 대대장으로 월남전에 참전했고 그후 공수특전단 대대장 空輸 여단장을 거쳐 特戰司令官까지 지낸 特殊戰通.

군단장재직시 首都圈 방위태세를 재정립했으며 이때 朴장군은 1·21사태당시 對南특공요원이었던 金新朝씨를 불러 그때의 침투로를 직접답사하는 치밀성을 보였다.

47세에 經營大學院에 입학, 석사학위를 따낸 學究熱도 있다. 경남昌寧출신. 石紅蓮여사(44)와의 사이에 2남1녀를 두고있다.

정부서 保國勳章

베네수엘라 合參議長등

金相浹국무총리는 2일 상오 베네수엘라의 후리오·세사르·페르난데스合參의장에게 保國勳章統一章을, 프리노·루이스·아드리안합참부의장에게 保國勳章國仙章을 각각 수여했다.

亞洲서 판치는 人質劇

국제 조직배경 大型化… 시체도 人質

경호위해 各國서 한국武術人수요늘어

몸값을 노리는 납치범죄가 최근 아시아 전역에서 유행처럼 자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해 「다음 10년동안의 범죄」로 불리는 납치행위는 최근들어 ①국제조직망을 갖춘 전문납치범들에 의해 저질러지며 ②산사람은 물론 시체까지 인질로잡고 ③몸값의 단위가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홍콩의 백만장자 왕·타·파이씨가 납치됐을때 석방댓가로 지불한 몸값은 1천1백만 달러 (약88억원)에 달했다. 나중에 경찰에서 납치범들을 체포했으나 몸값은 이미 臺灣의 지하조직으로 자취를 감춘뒤였다.

왕씨는 지난60년대에 이미 납치를 경험했다. 당시 가족들은 경찰에알리지않고 납치범들과 흥정을 벌여 6백만달러 (약48억원)를 지불하고 그를 안전하게 석방시킬수가 있었다.

이같은 납치범죄는 최근들어 부쩍 늘어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홍콩 한국등 아시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사회적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西자바섬에서는 지난3년동안 병원시체실에서 수백구의 시체를 도난당했다. 시체를 되돌려 받기위해 가족들은 최소한 수백달러상당의 돈을 지불해야했다.

말레이지아의 경우 몸값으로 납치범들이 요구하는 액수는 보통50만달러 (4억원)에 이른다.

파키스탄에서는 지난주 16세의 소년이 납치됐었는데 납치범들은 몸값으로 약 4천달러의 현금과 비단으로만든 터번12개, 라도팔목시계 12개, 남자옷과 테이프레코더등을 요구했다. 이같이 납치범들이 요구하는 몸값에 현금은물론 귀한 물건이 포함되기도 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납치범죄에 대해 각국에서는 엄한처벌과함께 묘책을 마련하려고 애쓰고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지아에서는 납치범을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수 있도록하고 경찰이 납치사건을 인지한 즉시 가족들의 재산을 동결, 몸값지불을 못하도록 하고있다.

당국의 노력과는 별도로 납치될 위험을 느끼는사람들 스스로가 신변경호인을 두는경우가 늘고있다. 그래서 특히 한국의 무술전문가들의 수요가 아시아 각지역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기도하다.

말레이지아의 한 재벌그룹총수는 지금까지 얼굴의 사진촬영을 거부해오고있는데 이것도 납치위험을 막아보자는 생각에서다.

싱가포르처럼 정부가 신변경호단을 만들어 부호의 요청에따라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경호인을 붙여주는 나라도 있다.

인도의경찰보고서는그러나납치를막아보려는노력에도 불구, 이같은 범죄는 다음 10년동안 극성을 부리게 될것으로전망하고 있다.【外誌】

海外토픽

肉聲듣고 家事 척척

美장애자용 로보트 開發

육성명령에 의해 전신마비환자와 관절염으로 거동못하는 노인들의 가사를 돌볼수있는 장애자용 로보트가 최근 美스탠퍼드大기술자들에 의해 개발돼 현재 실험실내 기능테스트를 받고있다고.

스탠퍼드대학 기계기술자인 래리·라이퍼씨는 美선진과학협회연례회의에서 30㎝길이의 팔을 가진 이 로보트가 사용자의 육성명령에 따라 식사를 준비하는등 웬만한 가사를 처리해낼수 있다고 말하고 가격이 자동차한대값을 넘지 않을것이라고강조.【AP】

◇입고 먹고… 달콤한 비키니

스위스의 한 소녀가 비키니의 젖가리개를 막 먹으려는 참. 캔디로 만든 이 美國產 비키니는 입으면 체온과 습기로인해 더욱 맛있어진다고.【취리히2日AP電=聯】

死刑집행 2시간전에 無罪판명

24년옥살이老人 보상금 百萬弗

살인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 2시간전 무죄로 밝혀진 이사도르·시머만이라는 올해 66세난 노인이 지난 24년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댓가로 1일 형사보상금 1백만달러를받고 이보상금이 적다고불평。

호텔 도어맨출신인 시머만노인은 1937년 경찰관 살해혐의로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사형집행직전에 오판으로 밝혀져 석방됐던것。【AP】

대처로 改名한후 보 首相과 競爭하기로

런던의 한법원은 최근 마거리트·대처 영국수상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26세 청년에게 대처수상의 선거구인 북런던에서 입후보하기위한 법정투쟁을 계속할 권리를 인정했다.

원래 홀린·하노먼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학과출신의 이청년은 자신의이름을 합법적으로 마거리트·대처로 고친후 대처보수당수와 경쟁하겠다며 黨名도 영어로 「보수당」과 비슷한 「보존주의자黨」이라고 명명하고 선거운동본부장은 美대통령과 똑같은 이름의 로널드·레이건으로 선정, 출마서류를 제출했는데 지방선거위원회측은 지명권의 남용이며 명백히 환상적이라는 이유로 서류접수를 거부했다.【AP】

美LA 平統協회원 방위성금 本社기탁

제2차平和통일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하러왔던 美로스앤젤레스平統협의회 (회장 文昌培) 회원 43명이 2일 방위성금 4백30만원을 모아 본사에 기탁했다. 이들은 1일 일선장병을방문한후 『한줌의 의지라도 보태자』는 결의를하고 회원 1인당 10만원씩의 방위성금을 갹출했다.

■한편 平統뉴욕협의회원 최희용씨도 방위성금 1백만원을 본사에 전달했다.

人事異動

商工部

▲特許廳심판소심판관 全哲淳 (1日字)

本社來訪

▲郭泰源씨 (在함부르크 韓人會長) 귀국인사차

北韓소식

北韓지역의 「天然기념물」

【서울=聯】최근 北傀 선전기관들이 간간이 단편적으로 소개한 북한지역의 天然기념물들을 살펴본다.

▲妙香山「두봉화」=약6백여년 자란 진달래과의 꽃나무로서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5백㎡의 적에면 달한다.

▲長壽山「萬里화」=黃南 長壽山에 산재, 서식하고있는 이꽃나무는 물푸레나무과에 속하는 낙엽활엽수로서 키는 보통 1.5m정도。줄기가 노란빛이 도는 밤색인것이 특색으로서 3월~5월초까지 노란꽃이 핀다.

▲海州「雪松나무」=海州시 玉溪동에있는 이나무는 높이가 15m, 밑둘레가 1·9m정도。잎과 나무껍질이 늘 검푸른색을 띠며 햇빛을 받으면 잎이 은백색으로 빛나 마치 눈에 뒤덮인것처럼보인다.

▲金野「은행나무」=咸興金野郡東興里에 있는 이나무는 약1천4백60여년전 이곳에 「안불寺」라는 절을지을때 같이 심은것으로 알려지고있는데 키는40m가넘으며 둘레16m정도로 20여명의중학생이 손을잡고 둘러쌀 정도。

英文版연설문집 발간

대통령비서실은 2일 全斗煥대통령연설문選集 제2輯을 英文版으로 발간, 駐韓외교사절 외국인접촉단체 세계각국의 유명대학도서관 저명언론인들에게 배포할 계획.

크라운版에 「1980년대, 새로운 挑戰에 임하여」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이 연설문선집은 지난81년10월부터 83년2월까지 있었던 全대통령의 각종 연설 담화문 국내외기자회견등 가운데 56건을 추려 英文으로 번역해 收錄했다. 「國政지표와 그 우선순위」, 「80년대로의 힘찬전진」등 8部로 편집된 이 연설문은 한국을 연구하는 외국의 전문가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설명.

心機一轉계기 삼도록

종합청사로 이사한후 처음열린 2일의 국무회의에서 金相浹국무총리는 『우리손으로 지은 청사에서 國政을 심의케 된것을 心機一轉의 계기로 삼아 精進하자』고 당부.

金총리는 이어 『장마철을 앞두고 각종안전대책에 만전을기하고 특히 보사부는 전염병발생예방을 위해 미리미리 대비하라』고 지시.

이날 국무회의는 7건의 법률안과 2건의대통령안, 6건의 일반안건등을 처리했는데 오는9일 국무회의가 끝난뒤 전국무위원들은 舊中央廳청사광장에서 기념촬영을 할 예정.

이날 회의에 참석키위해 국무회의실에 도착한 장관들은 좌석배열이 바뀐 商工등 5명의장관들은 담당직원의 안내를받아 자리를잡기도. 그런데 새국무회의실이 자리잡은 방은70년대한때 실력자였던 某씨가 사용하던 사무실이었던것으로 알려졌다.

改憲說無根 홍보시달

2일 民正黨의 주요黨職者들은 임시국회소집에대해 散發的인 의견開陳을통해 이달중순께 열릴가능성을 강력히 示唆.

陳懿鍾대표위원은 『6월국회소집은 民正黨이 시종 밝혀온 원칙』이라며 『총무에게 모든 사항을맡겼으니 원만히 成事될것으로 본다』고 樂觀.

權翊鉉사무총장도 이날상오의 사무처요원 정례조회에서 『임시국회에 대비, 사무처에서 지원준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하라』고당부, 국회 소집시일이 임박했음을 示唆했고 李鍾贊총무는 『국회를 열경우 모든 事案을 완벽하게 연소시켜야한다』고강조.

한편 民正黨은 3일아침 陳대표주재로 당사에서 朝餐을겸한市道지부위원장 회의를갖고 당면문제에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데 특히 全斗煥대통령이 항간의 改憲說을 事實無根이라고 否認한 것과관련, 이를 국민과 당원들에게 널리홍보하도록 시달할방침.

“따질것은 따져야…” 野서 국회召集 「當爲性」·早期소집 주장

국회소집이 先決과제

柳致松民韓黨총재는 2일 黨內일부에서 「與野領袖회담제의」를 촉구한데 대해 『眞意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선 우선 국회를 열어 따질 것은 따지고 보고할 것은 보고토록하는 것이 最先決과제』라고 피력.

그는 이어 전날 平統자문회의장에서 民正黨의 李鍾贊총무와귀엣말을 나눈 대목에 대해 『국회문제가 아닌 時局문제에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귀띔.

柳총재는 이날도 黨舍에서 高在淸국회부의장 孫世一·徐錫宰의원등과 잇달아 密談을나눴는데 高在淸부의장과는 蔡汶植국회의장 民正黨의 陳懿鍾대표위원 李鍾贊총무와의 접촉결과를, 孫·徐의원과는 일련의 政局흐름을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辛相佑부총재를 비롯, 柳漢烈사무총장 金鉉圭정책심의회의장 金元基훈련원장등의 바쁜발걸음이 눈에 띄었는데 모두가 무거운 표정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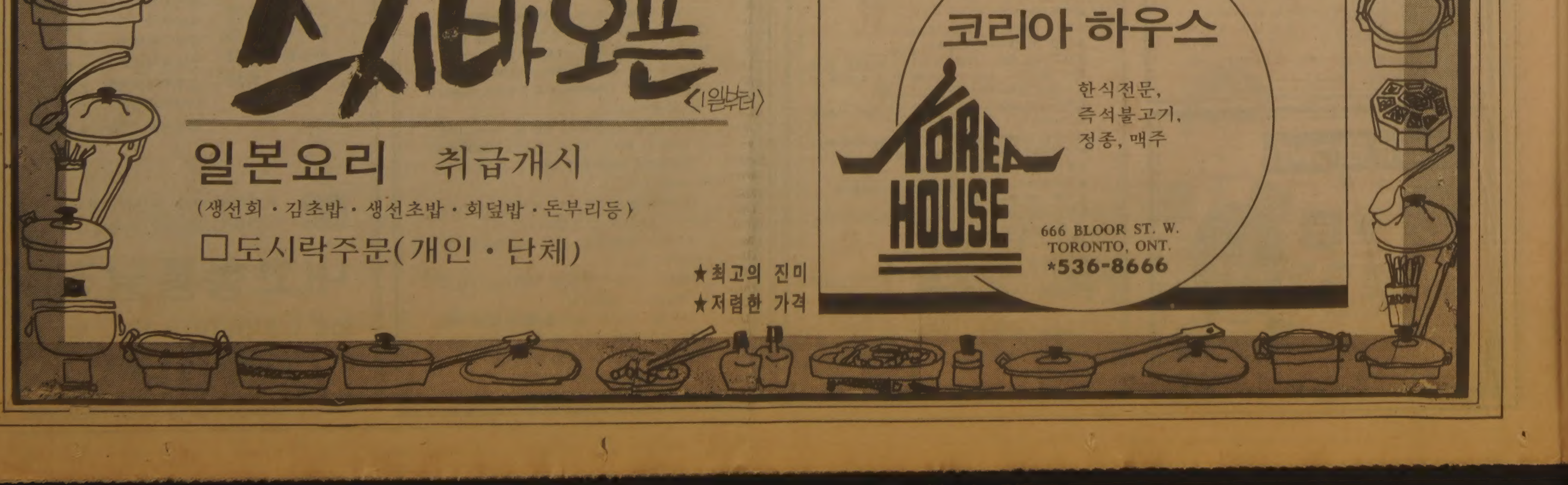
早期소집論 강력대두

국회대책을 논의한 2일상오 국민당의 총재단및총무단 연석회의에서는 時局동향에 대해 깊은 우려와함께 임시국회의 早期召集論이 강력히 대두.

金鍾哲 총재는이날 『최근 국내에서펼쳐지고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같이 걱정하고 黨차원에서의 슬기로운 대책을 마련하자』면서 『국회를 조속히 열도록 다각적인 노력을하라』고 李東鎭총무에게 지시.

이어 李총무는 『그동안 임시국회소집을 싸고 亂氣流가 있었지만 우리당은 총재의 뜻과 黨論에따라 시종일관 소집을 요구해왔다』고 저간의 3黨총무들과의 접촉사실을 보고한뒤 『소집일자가 확정되면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대책을 다시 논의토록 하겠다』고 설명.

이날회의에는 지난번 黨職파동이후 黨공식모임에 모습을 잘나타내지않았던 李萬燮부총재도 참석했다.



외로운 카터苦心의「撤軍번복」

밴스前美國務 回顧錄 숨막힌 3週

브레진스키除外 黨·장성·補佐官등反對

퍼시議員 책상치며 "示威하겠다" 警告도

미국의 역대행정부는 어떤 형태로든「한국문제」를 안고있었다。 카터행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휴전선에는 시대착오적인 냉전이 계속되고 있었고 중무장한 북괴군과 韓美軍간의 끊임없는 대치는 우리가 잠재적인 폭발점을 항상 지닌채 살아가야 한다는 고통스런사실을 주지시켰다。

카터행정부가 앉은 한국문제는 일부분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고 또 일부분은 自招한것이었다。 물려받은 유산은 소위 70년대 중반의 코리아게이트로 야기된 쓰라린 정치적 스캔들 그리고 의회의 반격이었다。

여기에 인권문제까지 겹처있었다。 인권문제는 한국문제가 제기될때마다 늘 거론되는 주제였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에깔고 출범한 카터행정부는 출범직후부터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다。 한국으로부터의 미군전투부대의 철수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카터는 대통령에 당선되자 첫기자회견에서 이목표를 재확인했다。

미국인들은 카터의 공약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아시아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아시아인들의 입장에서 볼때 카터의 정책은 캄보디아 베트남、그리고 포드행정부에의한 태국주둔 미군의 철수에 뒤이어 동아시아로부터 미군의 마지막 철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로 간주되었다。 첫반응은 福田赳夫일본수상으로부터 나왔다。 그는 77년2월 먼데일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때 駐韓미군의 철수는 중대한 실책이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먼데일은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입장에 동조하고있었지만 카터로부터 단지일본에 미국의 입장만 알릴뿐 철군정책을 뒤엎을 가능성은 절대 시사하지말라는 지시를 받고있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놀라울정도로 자제력을 갖고 행동했다。

그러나 미군철수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은 명백했다。 나는 홀브루크국무성 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에게「정책검토각서」의 작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그에게 주한미군불철수를 하나의 정책선택으로 제시할수있는 권한은 허용되지않았다。 따라서 그는 행정부내의모든 갈래의 견해를 반영、일련의 서로 다른 철군비율을 제시하고 보다 점진적이고 조심스러운 철군안을 제시했다。

미군철수는 지상전투부대와 지원부대에만 국한되며 주한미공군은 상당히 증강돼야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에 덧붙여 미행정부는 한국군을 강화하기위해 8억달러어치의 장비를 이양할수있는 권한을 의회에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홀브루크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과 연계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카터의 선거공약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해럴드·브라운 국방장관은 이러한 중대한 수정에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수정을 가했음에도 철군반대주장은 진정되지 않았다。 카터행정부의 동아시아정책을 강력히 지지해온 찰즈·퍼시상원의원은 홀브루크에게 책상을치며 자기는 共和黨의 거당적인 철군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東아시아小委 신임위원장인 존·글렌상원의원과군사위원회에서 영향력이 강한 샘·넌의원등 民主黨의 주요의원들이 퍼시의원에 동조했다。 헨리·잭슨 다니엘·이노우에 개리·파트상원의원도 반대입장에 가세했다。

행정부내에서도 철군을 반대하는 여론이 강했으며 대부분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있었다。 그러나 카터만은 여전히 철군입장을강력히 고수하고 있었다。

국방성에서는 문관이나 장군들 대부분이 철군에반대했고 홀브루크차관보를 포함한 국무성 관계자들도 같은 입장이었다。

육군장관 재직때와 그후 존슨대통령의 특사로 나는 한국을 방문했었다。 나는 그때 경험으로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복잡미묘한지를 잘알고있었다。

그래서 나는 브라운국방장관과 함께 카터대통령에게 이문제를 제기하려고노력했다。 그러나 카터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카터의 고위보좌관가운데 철군에찬성하는 사람은 브레진스키뿐이었다。

행정부내에 일부 동요가 있었으나 다행히도 행정부내의 심각한 의견불일치는 표면화되지는 않았다。

이 문제는 카터대통령이 79년 東京에서열린 7개선진공업국 정상회담참석후 한국방문의사를 밝힘으로써 자동적으로 제기될수있었다。

카터대통령의 訪韓임박과 더불어 美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재평가작업에착수했다。 새로운 방법으로 재평가한 결과 CIA의종전평가가 실제보다 30%정도 과소평가되었다고 CIA는 밝혔다。

극비리에 준비해온 CIA의 새 정보 평가는 카터대통령의 한국방문 前夜에 터져나왔다。 이 새정보평가가 행정부내에 유포되고 의회에 브리핑된 몇시간뒤 언론기관에 흘러들어가 카터대통령은 불만이었다。 카터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카터대통령은 서울에 도착했을때 朴正熙대통령이 철군문제를 직접 들이댈것을 우려했다。 카터는 그가 朴대통령의 견해를 잘알고 있다면서 朴대통령이 철군문제를 직접 제기하는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라고 수행각료들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우리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朴대통령은 제1차 양국정상회담석상에서 철군정책이 한국과 동북아시아지역에 초래할 위험에관해 45분동안에 걸쳐 설명했다。

통역을통해 전달되는 朴대통령의 철군정책공격으로 회담분위기가 매우냉각되고 있음을 느낄수있었다。

카터와 브라운국방 사이에 앉은 나는 카터가 분을 참고있음을 알수있었다。 그러나 당시 이는 어쩔수없는 상황이었다。

회의가 끝나자 카터대통령은 그가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들었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했다。 朴대통령을 만나자고한것은 인권문제를 논의하기위해서 였다면서 朴대통령의 철군에관한 이야기에는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駐韓美대사 글라이스틴과 브라운、브레진스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의 리무진승용차로 되돌아올때 대통령은 흉금을 터놓았다。 그러나 브레진스키를 제외한 모든 보좌관들이 그에 반대함으로써 그는 무척 외로와 보였다。 朴대통령이 그날저녁 카터대통령과 만찬에서 다시 만날때 마찰가능성이 없는 좀더 긍정적인 문제를 거론하도록 조언해달라고 그에게 요청했다。

만찬은 성공적이었다。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어색한 분위기가 일소됐다。 다음날 아침 우리가 서울에서 헤어질때도 철군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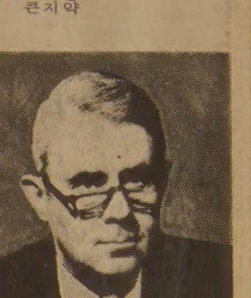
3주후인 7월20일 카터대통령은 새로운 정보평가와 다른 요인들을 감안、駐韓미군의 철수를 일단 정지키로 동의했다。 오랫동안 지속됐던 어려운 정치적논쟁이 비로소 만족스럽게 타결됐다。

3개월후 18년동안 한국을 통치해온 朴대통령이 자신의 정보책임자에게 시해됐을때 우리는 즉시 한국의 안보에대한 지원을 과시하기위해 한국영해로 항공모함1척을 급파했다。

【워싱턴=李文熙특파원】

◇青瓦臺서의 카터

◇ 青瓦臺만찬석상에서의 朴正熙대통령과 카터 美대통령。 朴대통령의 철군반대주장으로 어색했던 양국정상회담분위기가 만찬을 통해 해소됐다고 밴스회고록은 밝히고 있다。



◇사이런스·밴스

航空機 산업의 熾烈한 전쟁터

35번째「파리 에어쇼」

"「스페인購入先」잡아라" 4파전

29國경쟁… 10일경비 150만弗

【파리=安炳璨특파원】 브루제공항의 83년파리에어쇼(5월27~6월5일)는 1909년부터 2년마다 열려 금년 35회째。

보잉747機의 등에 업힌(피기백) 우주왕복선 엔터프라이즈號의 지축을 흔드는 시험비행과 함께 항공산업의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다。

최고가상품(민간항공기)과 최신예병기(전술항공기)의 집합전시장이기 때문에 29개국의 9백여 업체는 막대한 비용을 무릅쓰고 이대회에 참가하여 파리의 호텔예약은 별따기가 되었다。

맥도널·더글러스등 대표적항공기 제작회사는 10일간의 참가경비로 1백50만달러를 지출할 정도다。 항공산업계의 치열한 암투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계획한 엔터프라이즈號의 파리상공비행이 프랑스당국에의해 거부되는 사태를 낳았다。

NASA는 파리에어쇼에 엔터프라이즈號를 출품하는 김에 유럽각국首都상공을 의기양양하게 날도록 계획했다。

파리도착전 엔터프라이즈는 서독정부의 초청으로 본과 쾰로뉴상공을 날았고、벨기에정부는 브뤼셀을、네덜란드정부는 암스테르담과 헤이그등 대도시를 엔터프라이즈가 비행토록 초청하고있다。

영국도 파리에어쇼가 끝난후 엔터프라이즈號가 런던상공을 날아달라고 요청한 판이다。

오직 프랑스정부만은 미국-유럽우주탐색협조의 상징으로 6월1일에 엔터프라이즈가 센강을 따라 파리중심을 축하비행하겠다는 NASA의 신청을「파리의 보안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프랑스항공당국자는 5월28일 엔터프라이즈號의 비행거부결정을 미국측에 통고하면서 그것이 엘리제宮에서 정치적차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시사했다。

아마도 프랑스는 미제 우주왕복선이 파리상공에서 기술적우위를 과시하는것을 용인할수 없었을 것이다。

프랑스가 주축이되어 유럽우주局(ESA)의 협력으로 개발하고있는 아리안로키트는 왕복선이아닌 1회용일뿐 아니라 기술적장벽에 부딪쳐 답보상태를 면치못하고 있다。

엔터프라이즈의 파리비행 금지조치가 보여준 경쟁양상은 민간항공기분야나 전투기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5월27일 윌리엄즈버그 7개국정상회담에 앞서 파리에어쇼 개막테이프를 끊은 미테랑대통령은『프랑스는 서방세계의 항공우주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제2위의 지리를 지키고 있으며 선두주자를 바짝 추적하고있다。 프랑스의 자주적인 방위능력확보를 위해 우리는 외부기술과 접촉하여 최신기술을 습득해야한다』고 선언했다。

그와함께 샤를르·에르뉘국방상은 미라지機의 제3세대인 미라지 2000機 30대를 다소·브루제 항공사에 발주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프랑스는 파리에어쇼에 미라지3型에이어 최근에 개발한 M2000의 완전한모습은 내놓지 않았으나 내년중 프랑스공군에 이비행기를 배치하고 외국에도 팔계획하고있다。

작년9월 런던근교에서열린 제50회 판보로에어쇼의 화제는 포클랜드전쟁의 적수였던 영국제 해리어機와 프랑스제 슈퍼·에탕다르機가 나란히 전시된 장면이었다。

그때 영국은 90년대미래형 전투기인 ACA型機 모형을 공개했었다。 이번에 프랑스가 90년대 미래형전투기로 예고한 최신예기에는 ACX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18억 프랑의 예산으로 다소社가 개발한 ACX는 86년에 첫시험비행을 하고 10년내에 제작을끝마치겠다고 벼르고있다。

그런데 파리 에어쇼가 열리고있는 도중에 스페인 곤살레스 수상은 스페인공군 교체기로 맥도널·더글러스製 F18A호네트機 72대를 선택했다고 발표하여 유럽측에 타격을 주었다。

작년 12월 집권한 곤살레스는 당초「유럽型제작」을 의중에두고 토르나도機를 제작한 파나비아社와 상담도 진행한바 있는데 14대를 남긴 72대가 미국측에 간것이다。 26억달러에 달하는 스페인 전투기 구입은 영국·서독·이탈리아 합작인 파나비아및 미라지 생산자인 다소·브루제사이에 판매전쟁을일으켰었다。 이제나머지 14대를놓고 토르나도를 선두로 미라지 2000및 제너럴·다이내믹社의 F16、노드롭의 F20이 4파전을 벌이게 되었다。

다소社의 판매책임자가『곤살레스는 미국의 사회주의자』라고 스페인의 親美매입결정을 꼬집고있듯이 미국과 유럽항공기의 판매경합은 치열하다。

민간항공기의 경우는 에어버스·앤더스트리에와 보잉社로 집약된다。

프랑스는 내년말까지 보다 경제적인 1백50인승A320을 시험할것이라고 예고 했다。

보잉社도 지지않고 1백50인승 항공기인 7-7型을 88년까지 개발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파리 에어쇼에 출품된 美製우주왕복선 엔터프라이즈號。 프랑스항공당국은 이번 쇼에 이 비행기의 파리상공비행을 허가하지 않았다。

메아리

師弟同行

「시험보는 시간에 커닝하는 꼴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눈물이 글썽해지는 선생이 계셨다。〈아무개는 더러더러 내주는 졸업장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퇴짜를 놓고 나간적이 있는데、그대는 어쩌자고 그 짓을 하고 앉았는고…。남의 것을 보고 베껴 좋은 끝수를 맞다고 치자。 그런 식으로 학교를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 간다면 협잡꾼밖에 더 되겠는가…。 한심한 노릇이로다〉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것이었다」

새싹회회장인 윤석중시인의 글「잊을수없는스승」은 이렇게 시작된다。 이 글에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분으로 묘사된「잊을 수 없는 스승」은、한 民族私學에서 이름없는 平教師로 머물렀던 金教臣(1901~1945)이다。

「이름없는 平教師」라 하였지만、그는、윤석중시인 말고도 손기정선수나 유달영교수같은 유명인사들의 스승이었으니 이름이전혀없는 바는 아니다。 아니、종교인으로서의 그는、「聖書朝鮮」이라는 개인잡지를 15년동안이나 발행했고、그때문에 투옥당하기도 했던 이름난사람이다。

교육학자 金丁煥교수(高大)는、바람직한 教師像을 추구한 그의저서「全人教育論」에서、현대의 스승을 대표하는 세 사람으로 아동해방교육의 A·S·니일(1883~1973)、민족해방교육의 陶行知(1891~1946)와함께 민족이상교육의 실천가 金教臣을 꼽았다。

金教臣은、金교수에 의하면、가르친다기보다 일깨워준데에 그의 교육의 비결이 있었다。 사람이란、한번 맞으면 계속 돌아가는 팽이처럼、일깨움을 받으면 스스로 공부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때문에 그는 50분 수업에 교과서는 20분정도로 마무리짓고 인생이나 민족、인류의 이상따위를 이야기했다。 그는 특히 한국을「극동의 심장」으로 보고、우리가 이땅에 발을 디디고 버티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는「민족의 존재이유」를 깨우쳤다。• 학과공부와는 관계없는듯이 보이는 이런 수업이었는데도 그의 문하에서는 뛰어난 제자들이 많이 배출됐다。 제자·후학들의 추도문집인「金教臣과 韓國」(1972·盧平久編)은 그런 사정을 절절이 말해준다。 투철한 역사의식을 지녔기에、金教臣은 위대한 교사일수 있었다。 그는 비록 눈물이 흔한 격정의 사람이었지만、마치 알을 품은 암탉이 사납듯이、진리 앞에서는 언제나「사나운 교사」였다고 전해진다。

페스탈로치에게 바쳐진「사랑의 교사」「저지의아버지」등의 獻辭는、그를 자칫 博愛的教師像으로만 알려지도록 歪曲해왔다는것이 페스탈로치연구학자들의 지적이다。 페스탈로치는 실은 조국 스위스의 프랑스로부터의 해방과、산업자본의 농촌침투에 의해 흔들린 스위스민중의 역사의식의 각성을 필생의 과제로 삼은「전투적 교사」였다는것이다。 그의 민중교육의 이념은 그때까지의「읽기·쓰기·셈하기·교리문답」만의 학교를「인간의 학교」로 바꾸어놓았으며、교사양성을위한 사범학교설립、교직단체인「스위스교육협회」창설을 주도하게 했었다。

마침、한국일보社가 지난해 창설했던「한국교육자大賞」의 올해 수상자가 발표된것을 보면서、내일의 바람직한 교사像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한다。 우리의 사회는 그동안 눈에 띄는 경제성장이 있었다고 하지만、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는 단계는 아니며、더구나 교육계는 성장의 크지않은 혜택권에서도 밀려나 있는것이 현실이다。 때문에「콩나물교실」등의 교육환경은 물론 교사의 처우나 교권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도 슬픈현상은「주눅이든 교사」라는 지적에 있을 것이다。

일찌기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스승으로 모신것을 그가 남자로 태어난것、아테네에서 태어난것과 함께「세가지 자랑」으로 여겼다고 한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앞날에 희망을 가질수 있다면、그것은 여기 교육자 대상의 수상자들처럼 모든「주눅」을 떨쳐버린 훌륭한스승들을 우리가 모시고있기 때문일것이다。『그래도 교사를 믿어야한다。 그래도 아이들을 믿어야한다』고「삶과 믿음의 교실」의 저자인 李五德교장은 외친다。 수많은 金教臣、수많은 페스탈로치가 우리에게 師弟同行의 슬기와 용기를 함께 주고 있음을 본다。

鄭達泳

【編輯委員】

記者의 눈

「론」과「야스」

일본의 역대수상과는 달리「예스」와「노」를 분명히 하는 나까소네수상은 국내보다 국외에서 인기가 더 높다。 그는윌리엄즈버그에서 열린 7개 선진국정상회담에서『미국의 신형중거리미사일 퍼싱Ⅱ를 예정대로 유럽에 배치해야한다』고 발언해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영국의 대처수상을 비롯、레이건 美대통령도『일본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방위에 관해 이처럼 적극적인 발언을 한것은 놀라운 일이며국내에서 곤경을 당하지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처럼 나까소네수상의 분명한 태도로 레이건대통령과의 신뢰관계는 두터워졌고 드디어「론」과「야스」로 불리는 사이로 발전했다。

나까소네수상은 레이건대통령의 부추김을 받아 이번 회담에서 주도권을 잡아 어느만큼 일본의 콧대를 높였다고 자랑이지만 국내에서는 레이건의 세계전략에 휘말려 일본이 나토화할 염려가 있다고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있다。

나까소네수상은 회담이 끝난뒤『이번정상회담이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회의였으며 레이건대통령의지도로회의의첫머리에 발언、나는 이번 선진국정상회담을 리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가슴을 펴고 뽐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일본이 유럽안보에 끼여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크게 일어나고있음을 뒤늦게 알고「바람개비」로 알려진 나까소네수상은『예정대로 유럽에 미국의 중거리핵미사일을 배치해야한다고 말을 꺼낸것은 대처영국수상과 콜西獨수상이었으며 자기는 찬성만 했을 뿐』이라고 발뺌했다。

어쨌든 이번회담이 레이건 페이스로 강경한 對蘇정책성명을 내게된 것은 영국의 대처수상과 일본의 나까소네수상이 모두 레이건대통령과 같이「힘에 의한 평화유지」철학을 철저히 신봉하는 사람이었기때문이라는것이 일본외교가의 중평이다。

나까소네수상은 국제외교의 기본은 무엇보다 미국과의 신뢰관계 회복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위해 지난1월 訪美때 그는『美日안보조약으로 묶여있는 양국은 동맹관계이며 이속에는 당연히 군사관계도 포함돼 있다』고 명쾌히 천명했었다。 이같은 나까소네의 외교감각에따라 이번 윌리엄즈버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나까소네수상은 레이건대통령의 총대를 적극메는 반면에 자유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국제지위도 향상시키자는 계산이었는지모른다。

하지만 아스까다(飛鳥田) 사회당위원장을 비롯한 야당은『나까소네수상이 레이건대통령의 세계전략에 휘말려 집단안보에 한걸음 내디디게 됐다』고 호되게 비판、6월에 있을 參議院선거에서 한판 겨룰 태세를 갖추고 있어 국내정치는 한층 시끄러워질것같다。

【東京=宋孝彬특파원】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리스팅

◎주택

(1) West
a) Dufferin × Steeles
새동네에 들어선 Public Park 가까운 2층집(4 Bedrooms)
Asking 14만5천불(이헌영)
b) Royal York × Summit Cres.
Side Split(3 Bedrooms)
Asking 15만9천불(유응복)
(2) Central
a) Yonge × Finch
2층 붉은 벽돌집(4 Bedrooms)
이태리인소유, Ceramic Tile로 장식되었음.
Asking 25만9천불(이헌영)

b) Don Mills × Lawrence
Bungalow(3 Bedrooms)
Asking 12만7천불(유응복)
c) Don Mills × Lawrence
Bungalow(4 Bedrooms)
학교 가깝고 수영장 있음(16' × 32')
Asking 14만5천불(임윤식)
d) Lawrence × Underhill
교통편리지역(3 Bedrooms) 넓은 뒷뜰 New Carpet.
Asking 15만9천불(이헌영)
(3) East
a) Scarborough
Bungalow(3 Bedrooms) Asking 9만8천불(유응복)
b) Don Mills × Finch
Executive 2-story(4 Bedrooms), Double Garage, Professionally finished basement, Large-lot, Gameroom, Central Airconditioner.
Asking 23만9천불, D/P 7만불.(황용현)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TEL(416) 449-8644, 449-8446, 449-8645, 445-1516

황용현 (R)224-1967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임윤식 (R)636-7950
임분옥 533-9061
유응복 (R)447-9395

◎상업

(1)버라이어티스토아
a)Grocery Store(Lease 4년 + Option 5년)
주매상 $7,500, Asking $125,000 + Stock (유응복)
b)주매상 $6,500, (Rent $400/mo) Asking $95,000 (유응복) (황용현)
c)주매상 $5,500-6,500 (Rent $680/mo) Asking $75,00
d)Grocery Store
주매상 $3,000 (Lease 3년 + Option 5년, Rent $675/mo) Asking $25,000 + Stock (임윤식)
e)주매상 $6,000 (In Pickering, Lease 2년 + Option 5년, Rent $500/mo)
Asking $65,000 (임윤식)
f)주매상 $8,000 (Lease 2년 + Option 5년 Rent $1,100)
Asking $129,000 (임윤식)
g)Gift & Smoke Shop in Mall
주매상 $4,000 (Closed on Sunday) (임윤식)
h)Grocery Store (Lease 5년 + Option 5년 Rent $800/mo)
주매상 $7,000 Asking $120,000 (유응복)
(2) Dry Cleaner
(a)연매상 $110,000 Asking $120,000 (황용현)
(b)연매상 $24,000 Asking $189,000 (유응복)
(3)Video Shop
(a)주매상 $1,000 Asking $30,000 + Stock (황용현)
(b)Video Arcade (Plaza내에 있는) 29개의 Game기계·
(4) Donut Shop
(a)Donut와 햄버거 Shop
주매상 $6,000 + Video Income $4,000(월) 보장.
Asking $215,000(D/P $50,000) (황용현)
(b)Coffee & Donut Shop
Long-lease 6days open
연 순이익 $45,000 보장 (황용현)
(c)주매상 $6,500
Asking $270,000 (유응복)
(5) Fish & Ships (Downtown Shoping Center)
주매상 $8,000 Asking $279,000 (황용현)
(6) Fast-Food 겸한 Restaurant
주매상 $5,000 (Richmond Hill에 위치)
Asking $215,000 D/P$100,000

◎투자용건물

(1)코너스토어 + 건물(3Bedrooms)
주매상 $8천, Asking $35만 (임윤식)
(2)큰 길가의 가게 + 건물
Asking 16만5천불 (임윤식)
(3)Dufferin×Eglinton
가게(960 SQ FT)달린 건물(2층에 2Bedrooms)
Asking 14만5천불 (임윤식)
(4)주매상 8천불, 1Bedroom APT 4개 달린 Corner Downtown건물.
Asking 41만불 (황용현)
(5)Eaton Center에서 가까운 Commercial Corner Bldg.
Asking 27만9천불, D/P 7만불 (황용현)
(6)Variety Store와 Grocery가 달린 건물.
주매상 4천5백불, Appraisal 가격으로 D/P 3만5천불 (유응복)
(7)코너스토어 + 건물 (2Bedrooms)
주매상 $4,000, Asking $135,000 (유응복)

주택상담실 설치

(1)좋은 조건의 모게지 알선
(2)가옥의 가치 평가
(3)가옥의 구조변경에 관한 문의
(4)가옥의 투자 상담
(5)가옥 구입시 필요한 제반 지식 제공

住宅街 파고드는 "극성營業"

된서리

퇴폐술집 변태여관 豪華사우나 大型갈비집

기습團束·관계法 고치기로

金서울市長 新規허가 전면中斷지시

야금야금 주택가에 파고들어와 날로 극성을 더하는 퇴폐술집, 변태여관 초호화판 사우나, 대형 옥외갈비집들의 횡포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2일 江南지역등 신흥주택가에 진출한 이들 업소들이 교묘하게 퇴폐행위를 하거나 인근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해독을 끼치는 사례가 늘고있다고 지적, 신규허가를 전면 중단키로 하는한편 이들업소들의 더많은 진출을 근원적으로 봉쇄할수있게끔 건축법등 관계법령을 개정해야한다고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경찰과합동으로 변태영업을 기습단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각종인허가 업무등 민원사무를무리하게 구청에 위임한뒤 본청이충분한 감독기능을 발휘하지못하는 실정이어서 형식적인 으름장으로 그칠우려가 없지않다.

金聖培서울시장은 이날 상오 본청각국장과 구청장·시경국장등관계간부들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를 소집, 『최근 대다수 서민대중들에게 위화감을 조장하는 술집·여관·사우나·옥외호화갈비집등 불건전한 업소들이 많이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규허가를 전면중단하라고 지시했다.

金시장은 또 江南등 신개발지의 단독주택가와 아파트촌 주변에 대중음식점허가(신고사항)를 받고도 칸막이나 밀실을 설치하고 접대부를 고용, 변태적으로 퇴폐영업을 하는업소가 있는가하면 강남일대에서 성업중인 대형옥외갈비집의경우 냄새공해등 민원이 발생하고있다고 밝히고 이에대해서도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도 안마시술소등 불건전한 업소들의 업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에 의하면 이들업소들은 최근들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80년까지만해도 서울에는 사우나가 일부호텔부속시설을합쳐 15개소에 불과했으나 82년말에는 35개로 늘었고 금년들어 4개월사이에 또17개소가늘어 4월말현재 80년의 3배가넘는 47개소가 성업중이다.

여관은 3천5백63개소에서 3백33개가늘어난 3천8백96개이며 지난해부터 등장하기시작한 대형옥외 갈비집은 江南지역에서만 10개소가 성업중이다.

그밖에 대중음식점 허가로 사실상 요정이나 살롱형태로 변태영업을 하는것이 새로운 풍조가 돼 버렸다. 또 밀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다른 업소의 접대부를 파트·타임으로 불러 밴드까지 동원, 퇴폐영업을 하는 업소가 변두리주택가까지 진출했다. 江南區方背洞S아파트주위에는 안마시술소 4개와 여관 6개가 밀집해 있으며 크고 작은 술집들도 많이 몰려있다.

이 아파트주민 金永權씨(53)는 『반상회 때마다 불건전한 접객업소가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에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江南區 道谷洞에사는 한주민(47·공무원)은 『한집건너 술집, 두집 건너여관』이라고 말하면서 쾌적한 주택가에 그런 업소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도록 방치해둔 시행정의 난맥상을 개탄했다.

江西區 禾谷1洞의 0·75㎞지역내에는 무려 28개의 여관이 성업중인데여대생 成모양(22·E여대 4년)은『버스에서 내려 집에까지 가려면 무려 5개의 여관앞을 지나야 하는 형편』이라고 고충스런 표정을 지었고 주부 金玉順씨(35)는 집 바로 앞에 여관이 있어 여름철에도창을 열수 없다고 말했다.

호화사우나장의 실태는 더욱 놀랍다.

江南區의 D사우나는 11층건물전체에 사우나시설을 갖춰 6층은 『사우나가엄』이다. 6개층은 남녀사우나탕과 휴게시설이 있으며 나머지층은 각종음식점과 미용실등 부대시설이돼있는가하면 탕종류도 쑥탕·고온탕·라돈탕·미온탕등 7가지나돼 처음가는 사람은 어리둥절할 정도다.

5천원의 입욕료에 마사지료 1만5천원, 특별소비세 1만원, 음식값및 음료값 5천원등 한번에 3만원이상이나 드는데도 욕장안은 항상붐비고있다. 경찰에의하면 이들 대형 사우나탕과 호텔사우나탕에는 1백30명의 무자격안마사들이 고용돼있어 때로는 윤락행위까지도 이루어지고있다는것이다.

◇超豪華사우나빌딩 대낮에도 超滿員 사우나의 기업화로 불리는 어느 초호화판 사우나 빌딩. 대낮인데도 「공무수행」을 써붙인 관용차등 승용차들이 줄지어있고 드넓은 욕장은 초만원이다.

강변道路서 트럭덮쳐 택시승객등 5명死傷

2일상오8시30분께 서울麻浦區 唐人洞 서울화력발전소앞 강변도로에서 서울8바6289호 타이탄트럭이 펑크가 나면서 중앙선을 넘어 전복, 마주오던 서울4하2854호 포니개인택시(운전사 金洋·40)를 덮쳐 트럭운전사와 차주 朴東萬씨(33) 택시승객 吳鍾根씨(25·회사원·서울江西區傍花洞61 4의110)등 3명이 숨지고 택시운전사 金씨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트럭은 龍山쪽에서 청과물을싣고 과속으로 달리던 중이었는데 중앙선을 넘으면서 완전히 한바퀴돌아 뒤집혔고 택시는 트럭에깔려 형체를 분간하기어려울정도로 크게 부서졌다.

길가던 처녀등에 暴行

두 戰警대원 滿醉행패

2일 상오4시께 서울永登浦區 永登浦洞2街25 연흥극장앞길에서 서울鷺梁津경찰서 정보과소속 朴熙台상경(22)과 상황과출소소속 金學春순경(22)등 전경대원2명이 술에취해 길가던 尹모양(22·회사원)을 자신들이 몰고온 鷺梁津署소속 임900-1호 브리사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다 尹양이 반항하자 무릎을 걷어차는등 폭행을 했다.

이들은 또 이를말리던 서울4라8598호 한시택시운전사 최정일씨(38)와도 시비를벌이다 최씨의 택시문을 걷어찼으며 제지하는행인 문기영씨(26·종업원·서울永登浦區永登浦洞2街)의 얼굴을 주먹으로때려입술을터지게하기도 했다. 이들은행인의신고로 출동한永登浦경찰서중앙파출소 순경들에게붙잡혀 鷺梁津 경찰서로 넘겨졌다.

李검사장, 拘束지시

李種南서울지검 검사장은 2일 심판판정에 불복 경기장에서 행패를부린 프로야구단 三美슈퍼스타즈 감독 金振榮씨(48)를 구속하도록 서울지검 東部지청에 지시했다.

서울地法 합의11부 中共機납치범 다뤄

中共여객기 납치범 卓長仁씨(35)등 6명을 심판할 재판부가 2일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安又萬 부장판사·배석 崔貞洙·주심 劉承政판사)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중국어통역 선정등 재판준비에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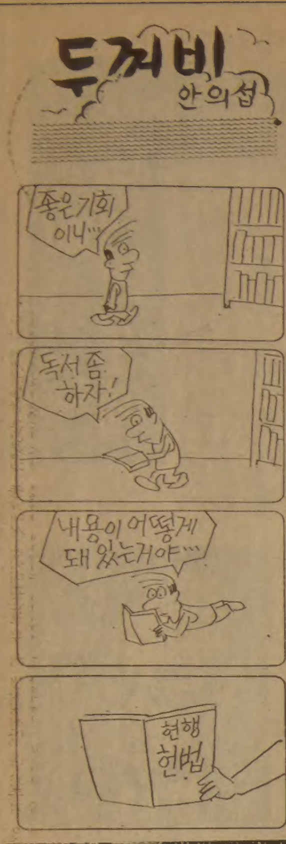
建國大생 2명拘束 校內示威 선동혐의

서울東部경찰서는 2일 建國大생 鄭光和군(28·정외과4년)과 徐東錫군(29·경제과4년)을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하오 3시40분께 교내학생회관앞에서 반정부유인물 50여장을뿌리며 시위를 선동한 혐의다.

무더위 여전

한여름같은 무더위가 2일에도 계속, 이날大邱의 35·3도를비롯, 浦項34·5, 大田32·3, 全州32·2, 서울28·8도등으로 예년보다 4~5도가높았다. 요즘의더위는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받는데다 太白산맥을 넘는기류가 푄 현상을일으키기때문에 생기는것인데 구름으로인한 복사냉각이 심해낮기온은 높고 밤기온은 낮아 일교차가 심한게 특징이다.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金萬熙피고에 7년求刑

울먹이며 公訴사실 모두是認

韓一합섬理事 拷問致死첫공판

한일합섬 이사 金根祖씨고문 치사사건의 金萬熙피고인(38·전 치안본부 수사대 경위)에게 징역7년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李根宇검사는 2일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金盛晩부장판사)심리로 열린 金피고인등 2명에 대한 폭행치사및 독직폭행사건 첫 공판에서 金피고인에게 징역7년을 구형하고 羅基瓊피고인(49·전 치안본부 수사대 경사)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金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지난 3월22일 하오10시20분부터 22일 상오1시30분까지 부산中區大廳洞 산장여관에서 한일합섬 경리이사 金根祖씨에게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다며 옷을 벗긴후 엎드려뻗쳐등 신체적 고문과 함께 얼굴과 머리등을 여러차례 때리고 여관방 열쇠고리로 발바닥을 구타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金피고인은 검찰의 직접신문도중 간간이 『죄송합니다』고 말했으며 변호사의 반대신문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계속 눈물을 닦으며 울먹였다. 金피고인은 또 최후진술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金씨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金피고인은 감사원의 요청을 받고 한일합섬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경매를 통해 재매입한 부산역앞의 비업무용 토지 7백99평에 대한 경매부정여부를 조사하던중 金이사를 숨지게한 혐의로,羅피고인은 金피고인과함께 수사를하면서 경남개발진흥사원章晋瓊씨(29)를 폭행한혐의로 지난4월14일 각각구속기소됐었다.

사진기자들 봉변

한편이날 공판이열린 대법정 앞마당에서 20여명의 교도관들이 金萬熙피고인을 찍으려던 사진기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져 東亞日報사진부 洪碩熹기자등이 멱살을잡히고 옷을 찢기기도했다.

醉客이 시비…殺人

【釜山】부산東萊경찰서는 2일 배윤기씨(47·東萊區漆山洞15)를상해치사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1일밤8시30분께 술에취해 東萊區漆山洞20의3 골목길을 가다 구멍가게에서 친구2명과 술을마시고 있던 김부겸씨(25·東萊區福泉洞14)와 시비를하다 칼을 찔러 숨지게했다는것. 【鷁】

(고있던 흉기로 김씨의가슴을 찔러 숨지게했다는것.)

聖堂사무장 被殺

光州

【光州】2일 새벽 光州市北區北洞33 北洞천주교회마당에서 이성당 사무장朴鍾烈씨(43)가 흉기로 가슴을찔려 숨진채 발견됐다.

시체를 처음 발견, 경찰에 신고한 박씨의 부인 金愛順씨(38)에 따르면 전날밤 12시가까이 부부가함께 안방에서 TV를 보다 부인이 먼저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추위를느껴 깨보니 응접실로 통하는 안방문이 열려있고 朴씨가 성당마당에서 심하게 피를흘린채 엎어져있었다고 말했다.

성당마당에서 5m쯤 떨어진 성당수녀원에서 잠을 자던 엔마 원장수녀(42)에 따르면 이날밤11시20분부터 30분사이 성당마당에서 朴씨가 『누구냐』『여자친구 어디 있느냐』『너경찰에 가야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고 그후 발자국소리가 나면서 朴씨집 문로 알고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다는것.

경찰은 이날밤 11시30분께 큰딸 朴양이 안방에 라디오를 가지러 왔을때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혼자서 자고 있었다는말에따라 범행시간을 11시30분에서 자정까지로보고있다. 【鷁】

금호호텔 放火犯에 無期선고

【大邱】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金正洙 부장판사)는 2일지법 4호법정에서 琴湖호텔 화재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방화범朴長壽피고인(24·부산 影島區 新仙1洞209)에게 무기징역(구형사형)을, 琴湖호텔대표 金英基피고인(46·大邱中區 下西洞28)에게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구형 징역2년), 호텔 영선과장 張萬金피고인(34)에게는 금고1년6월에 벌금 10만원(구형징역3년)을 각각 선고했다. 【鷁】

三美감독 金振榮씨 판정不滿폭행 立件

서울江東경찰서는 2일 프로야구 경기중 심판판정에 불복, 야구장안에서 폭행소동을 벌인 三美슈퍼스타즈 감독 金振榮씨(47)를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입건했다.

金감독은 이날 서울蠶室야구장에서 야간경기로 벌어진 三美와 MBC청룡과의 경기중 8회초 三美공격에서 2死후 주자만루상태서 안타로 2·3루주자가 홈인했으나 3루에서먼저 아웃당해 2루주자가홈인한것은 득점으로 인정할수없다는 판정이 난뒤 주심 金東昴씨(36)에게 약

나이지리아 次官補 李외무·李문공禮訪

나이지리아民俗무용단을 이끌고 來韓한 문지·울루룰라 사회개발청년문화성 차관보와 부단장인 가르바·아시와주문화국장등 일행은 2일 李振養문공부장관과 李範錫외무부장관을 잇달아 예방하고 양국간의문화교류문제에 관해 환담했다. (사진)

李문공장관은 『지난해 8월 全斗煥대통령과 나이지리아의 샤가리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이래 양국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으며 이런문화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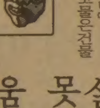
울루룰라 단장은 이에대해 『소대통령이 다녀간후 나이지리아 일반국민들의 한국에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전했다.

이자리에는 한국일보社의 張在九사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調和美

우수廣告物 大賞받은 白楨萬씨

"都市의 아름다움 못살리면 怪物"



옥외광고는 도시를 단장하는화장품이고 광고물 제작자는 扮裝士라 할수있다. 가히 광고시대다운 표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광고물은 오히려 도시의미관을 해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제1회우수광고물전시회에서대상을 차지한 白楨萬씨(46·사진)는 이같은 몰개성의현실을 개탄한다.

『옥외광고는 고객을 창조하고 점포의개성을 살리며 그도시의인상을 좌우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인식이 부족한것같습니다』

프랑스나 일본의 광고물은건물과 조화를 이루면서 독특한 이미지를 살리고 있는데 서울의간판은 서울을 개성이없는 괴물로 몰아가고있다고 꼬집는다.

白씨는 원래 광고전문가가 아니었다. 20년전 東亞大국문학과를 졸업한후 문자도안의 취미를 살려 겁없이 간판회사를 차렸다. 10여년이 흐르는동안 점차 자신이 만든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먹칠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광고전공이 아니라서 역시 바닥이 쉽게 드러난것 같았다.

부랴부랴 동·서양화등 순수미술에 관한 서적을 탐독하고 그래픽디자인도 공부했다. 뒤늦었지만 순수예술은 그에게 보다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었다. 「간판장인」의 탈을 벗고 거리의 예술을 창조한다는 자부심을 가질수 있었다.

지난70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광고미술도장 1급기능사자격도 따냈다. 그래도 부족감을 느꼈다. 해마다 자극을 얻기위해 해외에 나간다. 외국에서 우수한 광고물을 대할때마다 아직도 역부족인 자신을 채찍질하곤 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광고물도 많이 정비됐으나 질보다는 규격과 숫자정비에 치중했다는 白씨의 지적이다.

『간판은 크게 그리고 많이 단다고 효과가 있는것은 아니지요. 작아도 광고의 효과와 함께 도시의 아름다움을 살리는데에 광고의 생명이 있습니다』

꼬박 20년간을 도시의 몰개성과 싸우다보니 돈은 못벌었으나 扮裝士는 돈보다 아름다움을 창조해낼때 더 보람이 있는것 아니냐고 되묻는다. 【崔政俊기자】

개업5주년 기념 할인 대매출

Continental Console
CE-7N

Continental Console
CX-4

Studio
UST-7

Professional
KS-3F

Professional
KL-502

Traditional
803-T

◇각종 가와이 피아노 $2,500부터
◇전자올겐 $1,600부터
◇BONTEMPI올겐 $695부터
◇야마하 PORTABLE(소형)올겐 $175부터

☆은행융자를 이용한 6개월~2년간의 저 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합니다.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11

가와이 KEYBOARD CENTRE (모짜르트 MUSIC CENTRE) 대표 윤 호섭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學術탐험 뗏목 제2해모수號 進水

大韓해협에 再도전 水神에 河伯祭

표주박

○…83대한해협 뗏목 학술탐험에 나설 제2해모수호 진수식과 수신(水神)에게순항을 비는 河伯祭가 1일 하오3시 부산影島區 朝島 한국해양대 선착장에서 탐험대 尹明哲대장(29·成均館大 대학원생) 등 대원4명과 한국해양소년단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베풀어졌다.

오는 10일 巨濟島를 출발, 대한해협 횡단에 나설 해모수2호는 너비(폭) 4m 길이 8m의 뗏목으로 직경 30㎝의 삼나무 10개에 나무 돛대와 전마선 2개를 설치했고 뗏목중앙에 3명이 취침할수있는 선실(너비 1·2m 길이 1·8m 높이1m)이 마련돼 있다.

해모수2호는 2일상오 한국해양대를 출발, 이날밤 경남巨濟郡東部面多大里에 도착한후 오는10일 巨濟島를 출발, 홍도~대마도 근해이즈하라~이끼~규우슈가리쓰~하까다를 거쳐 29일 부산도착까지 장장6백26·4㎞(약338·7해리)를 항해하며 각지역유적지를 답사하게된다.

한편 대한해협 뗏목탐험은 지난해11월9일 尹대장 등 대원3명이 해모수1호를 타고 巨濟島를 출발했으나 한해19시간만에 남해에서 폭풍과 파도에 밀려 14시간을 표류하다 부근을 항해중이던 유조선 유공호(1만2천톤)에 의해 구조되었다. 【釜山=聯】

"돈받고 안봐준다" 虛僞 뇌물수수소동

○…서울淸凉里경찰서는 2일 徐秉植씨(24·상업·서울東大門區徽慶洞43)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徐씨는 지난1일 상오 2시30분께 서울淸凉里경찰서 徽慶파출소에서 음주행패로 친구 白모씨(24)와 함께 본서의 즉심에 넘어가게 되자 파출소 책상 타자기 밑에 1만원권지폐 1장을 직원 모르게 놓은뒤 즉심호송차를 타면서 『돈을 받고도 봐주지않는다는 사실을 상부에 알려 파면시키겠다』고 소란을 피운 혐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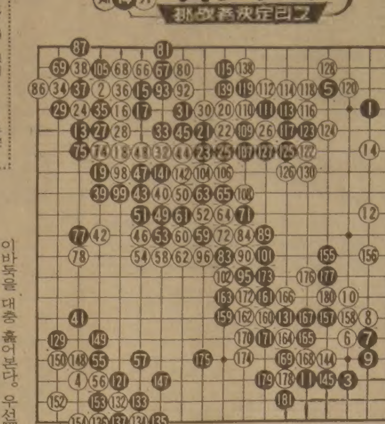
호송차가 떠난뒤 이파출소직원이 타자기밑에 놓인 지폐를 발견, 본서에 경위를 보고하자 본서에서는 徐씨의 행위가 즉심보다는 형사입건해서 벌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이날 영장을 신청하게 된 것。

제14기 名人战 挑戰者決定리그

第17局 總譜 181手完 (각5시간·덤5집반)

白(5段) 姜 勳〈2勝2敗〉

黑(6段) 張 秀 英〈5勝0敗〉



【黑不計勝】張6단은 드디어 5승무패. 이제 남은 것은 4승1패를한 徐奉洙7단과의 한판뿐이다. 그바둑을이기면 그만이고 설사 지더라도 동률재결승전을 바라볼수 있다. 즉말해서 올해의도전권을 따내는데 아주 유리한 고지에 선착한 것이다.

한편 姜5단은 3패를 기록한 때문에 남은 한판에서 河燦錫7단을 물리치지 못하면 다년간 정이든 名人戰시드組에서 탈락하게되어있다. 한데 실은 河7단역시 이미 3패를한 처지인지라 필승의 자세로 임할것이 틀림없다. 그것은 하회를 기다리기로하고

張6段 단연 先頭

이바둑을 대충 훑어본다. 우선黑은 55에 앞서 58의곳을 거듭밀지 못한때문에 白58、60、62로 끊겨 고전이 시작됐다。 또 좌상귀 黑69이하의 패싸움과정에서 81은 86에따내어 패를해소해야 되는것을 고집스레버티다가 83、89、95등 손해패를 썼으며 63、65의 두점마저 떨어져 중앙이 쑥밭으로 되어버렸다。 그런데 상변절충에서 白114(의당 115로살아 둘곳)가 대실수。 黑115、119로 白이 횡사하고 우상귀도 白120、128、130등 3수나 소비한때문에 이것이 곧 치명적패인이 되었다。

70…24。 73…37。 76…24。 79…37。 82…24。 85…37。 88…24。 91…37。 94…24。 97…37。 100…24。 103…37。 140…134。 143…137。 146…134。 151…137。 【一凡】

張吉山〈1757〉

黃晳暎 作 / 權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217)

『활빈이란 도대체 뭐요?』

남의 머슴으로 그런 일에 한눈 팔 겨를이없던 임기읍이 물으니 소금장수는 가장 장한듯이 주워 넘겼다。

『어젯밤 그 벼력소리두 못 들었수? 지금 양주 대전리에 용이 내려왔는데 묵은 세상은 끝장이 난다는 거요。 그리로 찾아가면 새세상에 살아남고 모두들 양반상놈이 없이 똑같은 사람이 된답디다』

소금장수는 바쁘게 달려가 버렸다。임기읍이 얼른 논에서 나와 다름질치니 멍하니 섰던 김천선이가 따라가며 외쳤다。

『이 사람아 같이 가세。하리사람들 전부 불러모아야지』

영평 읍내에서는 마침정원태가 아침 밥상을 받아 아내와 겸상으로 식사 중이었는데 이말립이가 봉수꾼 이응화(李應化)를 데리고 헐레벌떡 마당으로들어왔다。

『큰일났읍니다。산지사방에서 사람들이 떼를지어서 몰려가고 있읍니다』

말립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정원태는 숟가락을 놓고 일어섰다。

『왜… 무슨일이냐?』

『글쎄。간밤에 폭우를겪고는 그것이 천변대우의 시작이라고 난리들입니다』

말립이 말하였고 봉수꾼 이응화도 거들었다。

『관가에서도 소문을 들은 모양인지 파발을 띄운다 만다 법석입니다』

정원태는 탄식하였다。

『아뿔싸、여름에 폭우가 많은 것을 어찌 생각 못하였던가』

『지금 칠성암으로 달려가 날짜를 앞당기도록 급히 일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정원태는 손으로 날짜를 꼽아 보고나서 말하였다。

『그 수밖에 없겠지。당장이라도 입경을 해야만 한다』

김시동은 전날 정호명이네 집에 갔다가 폭우로 붙잡혀서 호명과 같이 잤던 터였다。호명이네 집이 면임 집이라 길가에 있었으며 사람들이 술렁대며 지나가는 것을 온 가족이 보았다。

『하늘이 때를 주었으나 맞지가 않소。우리가 이때를 타지 않으면 끝장이우』

김시동이 다급하여 말하자 정호명이도 대번에 알아 들었다。그는 행전을 치고 맨 저고리에 돌띠 매고 맨 머리에 두건 두르고 나섰다。

『가세、이 길루 한양에 들어가야지』

그들이 삼십리길을 잰걸음으로 달려 가는데 초촌내의 정자 앞에 이르니 들판이 온통 희끗희끗 하였다。그들 모두가 대전리를 향하여 한 방향으로 움직여 가고 있었던 것이다。

대전리에 이르니 벌써 먼저 온 사람들이 오거리 앞 하천의 지류가 모이는 둔덕위에 하얗게 올라 앉았고、시내비골은 마치 대처장이 선듯 하였다。사람들은 아직도 몰려드는 중이었다。

시동이와 정호명이 집으로 들어가니 방귀선이가 수심에 잠겨 앉았다가 벌떡 일어났다。

한국일보
구독신청·광고
(416)533-2361

海外스포츠

10顚11起 톰·스니바

失敗 절망딛고 執念의 도전
500마일 自動車 경주서
3시간5분에달려 우승

『절망을 극복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에게도정상의문은 열린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자동차 경주대회의 하나로 꼽히고있는 제67차 인디애나폴리스 5백마일 경주대회가 5월30일(한국시간) 열려 집념의레이서 톰·스니바(35·미국)가 3시간 5분 0·366초의 기록으로 영예의 우승을차지, 38만5천8백86달러의 1위상금을 받았다.

이대회에 10차례도전하여 한번도 우승을 이루지 못한채 준우승3회에 머물렀던 스니바는 인디애나폴리스 5백마일대회서 3차례 우승을 차지했던 강호 알·운서(44)를 11초차로 따돌리고 우승, 필생의 꿈을 이루었다.

스니바의 평균 스피드는 시속 162·117마일(약 2백59㎞)。

우승이 확정된후 스니바는 차(마치·코스워드)속에서 뛰쳐나와 아내 샤론을 포옹하고 『첫날밤을 맞은 새신랑보다 기분이 더 좋다。 골인지점을 앞두고 기름이 떨어졌다는 신호가 계기에 나타나 아찔했으나 완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스니바는 이대회서 처음 2백마일의 벽을 깨뜨려 화제를 일으켰던 선수인데, 이번대회 예선에서 이탈리아의 신예 테오·파비(27)가 208·049마일의 신기록을 수립하여 세계자동차경주계의 새로운 화제를 만들기도 했다。

이번대회 실황은 사상처음으로 일본 TBS방송국에 의해 일본에 TV우주중계되어 관심을 끌었으며 이를 계기로 일본자동차경주계도 큰 자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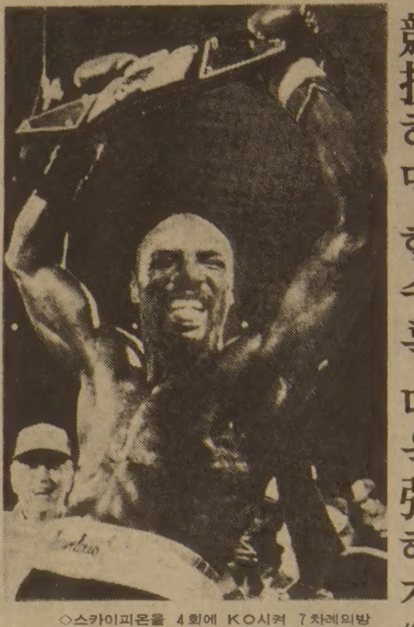
2위를차지한 알·운서의 아들(21)은 10위를차지, 유망주로 부각되었다。

이대회 4회 우승의 A·J·포이트와82년우승자 고든·존코크는 엔진고장으로 도중탈락했고 69년도 우승자 마리오·안드레티도 충돌사고로 기권했다。 【인디애나폴리스(미국)聯】

◇톰·스니바(右)가 인디애나폴리스 5백마일 경주대회서 우승을 차지한후 팬들에게 손을 흔들어 기쁨을 표시하고있다。 【AP】

"敵手없어 은퇴생각" 氣高萬丈 해글러

통합후 7次방어 모두KO勝
"競技하면 할수록 더욱強해져"



◇스카이피온을 4회에 KO시켜 7차례의방어전을 모두 KO로 장식한 마빈·해글러。타이틀 벨트를 쳐들어 鐵拳을 과시하고있다。【AP】

강자만이 살아남는 링이지만 세계미들급 통합챔피언마빈·해글러(28)의 주먹은돋보인다。해글러는 지난 5월28일신예 윌포드·스카이피온을4회KO로물리치고 타이틀7차방어에 성공한후『이세상에서 나를 쓰러뜨릴 선수는없다』고 큰소리쳤다。1만3천여 관중앞에서 스카이피온을 무릎꿇린 해글러는 기자회견에서『은퇴를 생각하고 있다』고 선언, 기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나는 경기를 치를때마다 더욱 강해진다。그러나 내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 들고 있다。나는 은퇴에대해 오래 생각해왔다。내 가족과도 상의했다』고 전혀 예상하지않았던 얘기였다。어떻게보면 해글러가 은퇴하겠다고 말한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상대할만한 선수가 현재로서는 없기때문이다。

80년 9월27일 런던에서 3라운드[illegible]에 알란·민터를 눕힌 이래 지금까지 7명의 도전자가 해글러의 주먹앞에 KO로 쓰러졌다。지금까지 프로통산전적 57승(48KO) 2무2패。

2무2패의 기록은 초창기에 이루어졌고 그나마 그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던복서들은 모두 재대전에서 무릎을 꿇었다。『상대가 없어서』『내자신이 너무 강해서』은퇴하겠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않는사람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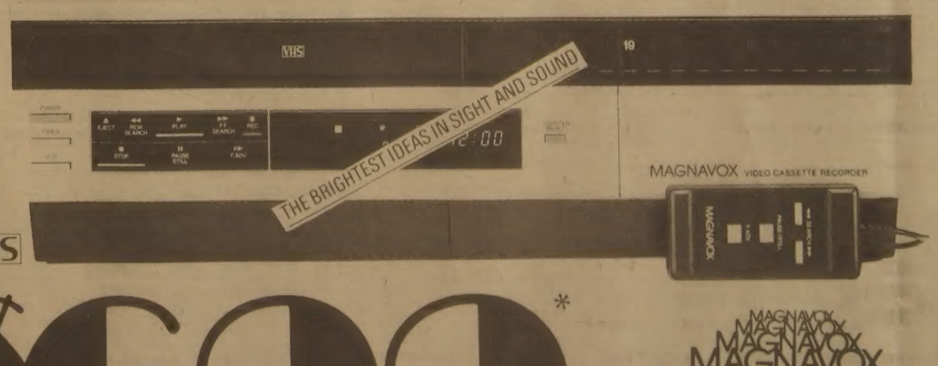
은퇴와 복귀를 떡먹듯번복, 팬들의 관심을 끌고 흥행성을 높이던 前세계 챔피언 무하마드·알리의 수법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이같은 추측은 근거가있다。

해글러는 스카이피온을 간단히 물리쳤으나 스카이피온의 기량을 높이 평가했다。『스카이피온만큼공격적이고 거친 선수는 처음이다。어떻게 싸웠는지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운좋게 라이트스트레이트와 왼쪽훅을 적중시켜 이겼다』고추켜세웠다。이 말에는 운이 나쁠 경우 언젠가는 패할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돼있다。

어떤 상대든 이겨야만하는것이프로복싱 이지만 해글러는 너무 강해서 오히려 인기가 떨어지는 셈이다。

【프로비던스(미국)AP聯合=特約】

2 FOR THE 2 SHOW
1.FRONT LOADING 2.TOUCH TU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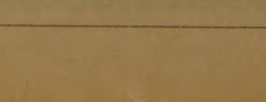


VHS
$699.*
MAGNAVOX
THE BRIGHTEST IDEAS IN SIGHT AND SOUND
PHILIPS
*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 Price in effect while quantities last.

NEC
$699.*
AUTO REWIND
*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 Price in effect while quantities last.
7DAYS RECORDING 4EVENTS TIMER

아카데미 T.V.& STEREO CO.

FINCHWEST MALL
3467 WESTON RD. FINCH
전 광 재
745-5555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Rockwood Mall 안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전화 : 533-8110, 533-7966
660 Bloor St. W.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체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목수일·드라이 월·페인팅 등등 해드립니다.
18년 경험, 무료견적.
전화 : 653-7446

집수리, 건물구조변경, 지하실수리 전문. 일반목수일 합니다.
각종기계시설및 진열장, 카운터제작, 페인팅.
타일, 신건축, 세멘트일등 전화:669-5784 Mr.심

식 당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 한식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Korean Garden(정원)
고향의 맛. 한국식을 전문으로 함.
7197 Stanley Ave. Niagara Falls. 전화:1-354-3800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울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 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오 ! 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체 취급. ※ 칼국수 전문.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홍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금천루). 영업시간 오전8:00~새벽1시.
양식, 중국식(사천요리). 단체손님 환영. 일요일 휴업
예약전화 : 491-4058. 3030 DonMills Rd.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 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Mr. Kim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전화 : 636-1430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 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366-5655 252-1638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코 라 메 관 광
(나이아가라폭포. 1000 Islands 일일관광)
649A BLOOR ST.W. (제일여행사내)
전화 : (416)535-0853, R)265-4842 함영호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진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불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택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Clover Printing Co.
3351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N1
Bus : 251-9587 위정남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열두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변 달 익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 AUTO SERVICE
▲라지에타 ▲히타 ▲깨스탱크 ▲워터펌프 수리
◉Radiator Service (B)245-1978, (R)248-6032 김용한
◉Auto Service (B)245-2024, (R)759-9753 유선만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겁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주말출장 자동차 수리
(Licensed Mechanic)
전화 : 299-4238 Mr.리

장 의 사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카텐이라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카텐카페트상사로.
◉16년경험 ◉분납가능 ◉무료견적 ◉품질다양.
전화 : (B)252-4857 (R)252-6602 Mr. 유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쉐어 · 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281-4650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의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켄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정 한의원
인삼 녹용이라고 모두에게 좋은 약은 아닙니다. 체질에 맞는 약을 쓰셔야 합니다. 정확한 진맥으로 체질감별및 진단, 처방조제, 체질별식이요법.
침, 뜸, 우황, 사향, 경명주사, 녹용, 인삼및 전재한약재, 신경통, 관절염, 요통, 고혈압, 위장병, 두통, 디스크, 급만성제질환, 신경성제질환, 빈혈, 부인병일체, 늑막염, 맹장염, 중풍예방, 정력감퇴및 예방, 허약체질, 기타 건강상담 환영.
643 Bloor St. W. 2층(신용조합옆) 전화 : 536-6854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철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희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고급레스토랑 남강

●한식 ●일식전문

스시— 바 오픈!

연회석 110석 완비(단체예약환영)

920 YONGE ST. 923-3060

구 인

한국요리사 1명(3년 유경험자).
한국요리사 헬퍼1명
중국요리사 헬퍼1명(남자에 한함).
웨이트레스 1명.
능력에 따라서 우대함. 전화 : 532-2727

스토아에서 일할 여자캐쉬어 구함.
다운타운지역, 유경험자에 한함.
전화 : 368-8834(커피숍에서 일해본분 우대)

Operator required, To operate a Gross A, Machine,
Some English Required,
Please call Mary Anne, 593-0320,

남자헬퍼 구함.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366 Bloor St, W, Mrs, 박.

간단한 가사일과 아기 봐주실 분 구함.
Rexdale 지역.
전화 : 741-9443(오후7시이후)

성실하고 신체 건강한 남자 Full Time Helper 구함.
자세한 문의는, 493-2228
491-6773

Store Cashier 구함.
(Full Time 혹은 Part Time)(Eglinton & Dufferin 지역).
전화 : 783-0683

입주하셔서 할머니 돌봐주실분 구함.
전화 : 767-9911(오후6시 부터 8시사이)

유경험자 Store Helper 구함.
Scarboro 지역 거주하시는 분
전화 : 439-9531

착실한 남자 가게헬퍼 구함.
Part Time, Toronto East지역.
전화 : 466-3995

Mac's Milk Store에서 주말에 일할
경험있는 Cashier 구함.(미시사가지역)
전화 : 278-4867

아기 돌봐 주실분 구함. 몬트리올지역. (적어도 2개월 내지 6개월동안). 숙식·교통편의제공·우대함
전화 : 921-7105(Mrs, 리 오후4시이후)

재봉사급구 (유경험자).
시간당 5불, 829 Dundas St, W.
전화 : 368-2819, Mr, 왕.

입주해서 아기 봐 주실 분 구함.(브램톤지역)
(2살). 월요일~토요일 저녁까지.
전화 : 456-0567, 451-2560, 453-0643

결혼 상담

남·녀 연령불문 한국내에 결혼 환영
(시간 AM9~12, PM7~10)전화 : 751-3628 Mr.최
10 SUNRISE AVE. #411 TOR.

개인지도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 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바이올린 개인지도함.
전화 : 535-0708 Mr. 박

바이올린 개인지도함.
Professional Violinist with Ba, Music, A.R.C.T.
전화 : 233-4200, Mr, Wong

구 혼

1957년생임. 신랑감을 구함(단 시민권자)
현재 시골에서 가게를 하고 있음.
전화 : 974-9483(Mrs. 김, 오후6시이후)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매 매

그로서리스토아와 2 Bedroom 딸린 건물 급매.
Asking 12만불.
433 Pape Ave, Tor,.

Yonge St.에 있는 Snack-bar(커피, 샌드위치)
오전7시 open, 오후4시 close, 주5일 영업.
적은 자금으로 운영가능. 전화 : 245-4614(오후7시이후)

(1)Bramalea City Centre 쇼핑 몰안에 있는 Naturalfood Nuts종류 Bulk Food Store, (2)바쁜 몰, Take-Out Food식당 혼자할 수 있음.
좋은 리스, 장래 유망업종, 성업중인 바쁜 몰안의 비지네스, 인구계속 급증지역, 무경험자 연락 바람.
전화 : 793-4249 Mr.고

버라이어티스토어 급매(2층 APT건물포함). 월이익금 $4,300이상. 아스킹$11만9천 + Stock, $3만9천 Cash 잔금은 Mortgage를 줄수 있음. 주소 : 287 Locke St. South, Hamilton(Locke & Stanley)

Becker's 후렌차이스 스토어 팝니다.
314 Painted Post Dr. Scarboro,(직접내방 요망)
가정형편상 급매함.

Mall 안에 있는 Gift Store 급매,
연매상 12만7천불, 리스 1990년까지,
Asking:2만불 + Stock, 전화 : 282-6282

Convenience Store 급매,
좋은 조건, Downsview 지역,
전화 : (B)630-1252, (R)669-4814,

350 Bed Institution
Owner Must Sell, $399,000

Located 2 Hours West of Metro on 6 1/2 Acres with Main Building & Two 160 Bed Dormers, Complete Full Kitchen, Dining Rm., Seats 200, Full Recreational Facilities, 2 Special Care Ward, Parking for 300 Cars,

Swimming Pool, All Alarm Systems + Many More Extras, All for $399,000, Perfect for Camp, Rest Home or Any Institutional Use,

CALL MR, MADSEN For Full Details,
Re-Max, Richmond Hill Realty Inc,
Realtor, Tel : (416)883-4922

셋압한지 3개월 된 버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전망 좋음, 현재 주매상 $3,000 개런티.
렌트 $500(5년) + $590(5년).
지하실 포함, 아스킹 : $2만 + 스탁(All Cash원함)
1221 Danforth Ave.

Private : Christie-Barton, 단단한 벽돌집 4-plex,
수입 $12,600 + Owner's 아파트와 차고있음,
아스킹 : $12만9천, 주인직접거래, 전화 : 921-6526,

햄버거 레스트랑 급매
성업중, 리스 좋음, Downtown(시내중심가)
전화 : 461-2404 MR. ANGELO

가게와 살림집 딸린 건물 급매,
○살림집 : 3 Bedrooms, 거실, 부엌, 변소(4 pc)
○가 게 : 년매상 25만불이상, 우체국도 겸함.
Asking 12만불, Howard Moore
(705)325-4448, (705)325-4290
Moore & Lougheed Ltd.

식자기 팝니다. Spica-K형, (일본 Shaken 회사제) 한글·한자·일어·영어 식자가능.
전화 : 977-3745 Mr, Cheng

턱숍급매, 리스 5년+5년 옵션
주매상 $6,000, 좋은 조건으로 양도하겠음.
230 Oak St, Tor.

드라이크리닝(Pick Up) Store 급매,
Pikerling지역, 주매상 $1,400,
Rainbow Realty, 전화 : 752-7575

Fast Food Store Salada Sandwich & Soup
$3,500 Weekly(Bloor & Yonge),
Rainbow Realty, Mr,Sotos 752-7575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6,000,
리스(5년 + 5년), Asking : $61,000,
전화 : 1-528-3986, 해밀톤 Mr, 리.

자동차 팝니다. Sale Price $5,000,
닷산 200 SX 80년도형.
전화 : 536-8666

House for sale, Thornhill Area, 1,800 Sq, Ft,
4 Bedrms, Fire Place, Central Air Condition,
Many Extra, Tel : 889-5320

3년된 하우스 팝니다.
타주 이주관계로 좋은 조건으로 팝니다.
가격 : $97,000, 전화 : 499-3764

버라이어티 스토아및 건물 가정형편상 급매, 이윤 좋고 경쟁 없는 코너스토어, 2층 2베드룸, 주매상 : $4,000 + 티켓, 9 to 9, 해밀톤, 전화 : 526-7179 Mr, Kim,

전망좋은 사진가게 판매
증명사진, 액자, 인화, 현상, 여권사진
전화 : 335-6601(버링톤)

실내장식

Samuel Harris Limited 362-1964

실내를 완전히 청소하고 꾸며드립니다. (집·가게·사무실등 등)
◉특별봉사
- 가죽및 인조가죽
- 각종 섬유제
- 자동차 실내
178-182 FRONT ST, E, 한번 방문하시거나,
전화 : 362-1964 상담 바랍니다.

실내설계

정기섭 실내 설계 전화 755-0308
각종 실내설계, 건축허가 및 시공
STORE, FLOWER SHOP, 도넛Shop, 사무실 디자인 등.

도서판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One Bachelor 지하실 세놓음.
전화 : 762-7958 Mrs, 김.
(아침 8시-10시, 저녁 4시반-10시까지 전화요망)

▲2 Bed Room 살림집 렌트,
다운타운 지역, 7월1일 입주, 월 $450,00
▲방 세놓습니다, Dry하고 깨끗함, (다운타운)
월세 $200,00 533-2363(저녁시간)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DANCE STUDIO
로맨틱 탱고, 룸바, 차차, 스윙등…
2 for 1 봄철특별할인, 전화 : 781-0691

가구점

에코시 가구점
21 Vaughan Rd,(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 ◉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 -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순꽃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크리스탈 꽃집.
각종 어레인지먼트,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366 Bloor St. W. 전화:927-8730 Mr, 박

장미원(Rose Garden)일요일도 영업함(am10-pm5)
◉각종 플랜트·어렌지먼트 ◉Party Time Supplies
◉웨딩 & Special Day Cake 주문배달 ◉후룻바스켓
◉결혼·회갑·장례등 각종 예식 화환 염가판매
1117 O'Connor Dr, (Victoria Park W, & St,Clair E)
전화 : 757-1010(B), 757-0227(R) Mr, 김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사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오.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SUN PAINT & WALLPAPER
각종 고급 페인트와 벽지 취급, 무료견적, 상담환영,
619•McCowan Rd & Lawrence Ave, 전화 : 438-6965 이광순

미 용

킴스미용실• ◉(일요일 휴무)
1)머리에 제일 중요한 정확한 헤어카트 시도
2)전과달리 기다리지 않게 해드림
3)헬퍼에게 맡기지않고 직접 해드림
4)저렴한 가격과 고급약 서비스(노인 25불)
5)신부화장하신 분에게 고급드레스 대여
668 Manning Ave, 전화 : 532-7094(B) 248-2437 Mrs, Kim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피고미용실
1133 Dundas St,E, Missi, Ont,
B)270-4684, R)277-8985, Mrs, 고,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우체국옆) Scarboro,
전화 : (B)759-8854, (R)755-2759 Mrs, 허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강학수종합보험)
P.O.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전화 : 622-5147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24-1967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CANADA PERMANENT TRUST CO.
주택·사업체등 부동산 취급, 몰게이지 상담.
김평(Paul Kim) 전화 : 497-9794(B) 491-5962(R)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 533-236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JOA STUDIO(결혼사진및 비데오전문)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299-4223(Mr, 조)
499-3893(Mr, 정)
424-2082(Mr, 윤)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횟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선물센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60 Bloor St, W,
전화 : 533-7966 533-8110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퍼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W. 535-9541 MR 김

개업2주년

특별대매출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 럭키드래프리에서는 개업2주년을 맞이하여 교민여러분께 특별 염가봉사코자 하오니, 1차 왕림하셔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커튼은 어떻게, 어떤 수를, 어느 색깔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집안의 분위기를 살릴수 있고 없고가 주된 목적입니다. 자신있게 색상 조화를 해드리겠으며, 양심과 성의로써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럭키・드레프리

대표 최원보 올림

여러분의 상담에 성의껏 응답해 드립니다.

다양한 신품목 다량입하

- **READY MADE**
  쎄일가격에서 15% OFF
- **STOCK BLIND**
  45%OFF
- **CUSTOM BLIND**
  30%OFF
- **CUSTOM MADE DRAPERY**
  종전과 같은 쎄일가격

◇각종류별로 할인해 드립니다.

4141 DIXIE RD.

ROCKWOOD MALL (딕시×버남돌프)

LUCKY DRAPERY

☎ 625-0698